

## 다시 뛰는 대한민국 ‘GREAT 코리아’

(Growth, Reform, Eco, Alone, Tech)

### 2019 신년기획

2019년 대한민국의 현실은 암담하다. 경제는 2%대의 저성장 터널에 들어섰다. 설비투자는 줄고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일자리가 줄면서 실업난은 최악의 상황이다.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다. 출산율은 0%대로 떨어졌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빈부 격차는 더 벌어졌다. ‘북한 리스크’도 줄긴 했지만 진행형이다. 현실 여건을 보면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과연 우리에게 희망은 없는 것일까. 아니다. 희망이 있다. 대한민국은 위기에 더 강해지는 DNA가 있다. 과거 경제위기를 극복한 저력이 있다. 어렵다고는 하지만 희망의 빛도 보인다. 수출 6000억 달러 돌파와 질주하는 반도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이 바로 그것이다. 국민소득 3만 달러는 2만 달러를 돌파한 지 12년 만이다. 공교롭게도 2만 달러와 3만 달러를 넘어 맞은 해가 돼지해다. 소득 3만 달러 시대라는 긍정의 키워드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됐다.

▶관련기사 4·5면

수출은 사상 처음 6000억 달러를 넘어 6055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도 83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지난해 5월부터 수출이 매달 500억 달러를 넘었다. 반도체는 독보적인 1위를 질주하고 있다. 반도체 못지않은 시장 지배력을 가진 2차전지 산업도 8.6%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오랜 기간 침체됐던 조선업도 올해 기지개를 켤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의 예상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할 거란 전망도 나왔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위기에 강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 도약했다. 세계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찬사를 보냈다. 1997년 말 찾아온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는 또 어떤가. 1인당 국민소득은 7000달러대까지 추락했다. 외신들은 ‘한국이 삼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렸다’고 조롱했다. 비판은 오래가지 못했다. 한국은 보란듯이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

2%대 저성장 터널 ‘암울한 현실’  
주저앉기보다는 ‘위기를 기회로’

정부, 반기업정서 탈피 규제혁신을  
기업, 新기술 미래 먹거리 만들어야  
국민 결집된 힘 더하면 ‘희망 불씨’

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의 수출을 통해 성장 엔진을 다시 살렸다. 위기에서 벗어난 2000년 경제성장률은 8.9%로 치솟았다.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비롯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한국은 수출로 위기를 넘어섰다.

거저 되는 건 없다. 민관이 힘을 합쳐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 전환은 필요충분조건이다. 정부는 꺼져가는 성장동력을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기업들이 팔 수 있게 해야 한다. 반(反)기업 정서에서 벗어나 기업의 기를 살리고 규제혁신에 나서야 한다. 기업은 신기술 개발 경쟁에서 승리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국민의 결집된 힘이 더해진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

이투데이는 성장 회복(Growth),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Reform), 친환경 시대(Eco-Energy), 1인 가구 트렌드(Alone), 미래를 여는 신기술(Technology) 등의 새 키워드를 담아 <다시 뛰는 대한민국 ‘GREAT Korea’> 시리즈로 새해를 시작한다. 유현희 기자 yhh1209@

### 신년 특집 지면 안내

금융이 중소기업 살리려면	12
산업 트렌드 ‘신기술·신동맹’	13
글로벌 위미노믹스	14
유리천장이 뚫린다	15
급변하는 유통산업	16
전문연구요원 폐지	17
기해년 빛날 돼지띠 CEO	22~23



희망의 새해...경제 살아나길

우뚝 솟은 안나푸르히(8091m·맨 왼쪽 봉우리) 등 세계의 지붕 히말리아산맥에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 늘 반짝이는 일출과 일몰이지만, 기대와 희망이 담긴 오늘의 태양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난다. 자영업자와 서민, 기업 등 사회 모든 계층이 어려웠던 2018년은 석연과 함께 사라졌다. 이제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다. 아쉬움은 뒤로하고 다시 뛰자. **윤필현(네필)·오승현 기자 story@**

## 새 역사 쓴 韓 수출...작년 6055억 달러 ‘신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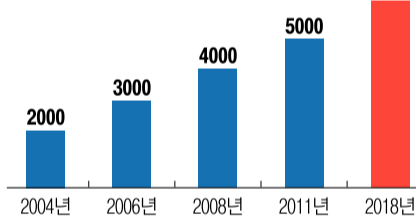
반도체·석유화학 최고 성적표 거둬  
주력 품목 글로벌 경쟁력 확보 과제

우리나라는 지난해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을 올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연간 수출액이 전년보다 5.5% 늘어난 6054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연간 수출액이 60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수출 6000억 달러를 달성한 일곱 번째 나라가 됐다.

일등공신은 반도체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액은 1267억1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단일 부품 수출액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전 세계에서 한국 반도체가 유일하다.

우리나라 수출액 추이  
(단위: 억 달러)



체가 유일하다. 석유화학 역시 유가 상승 등에 힘입어 최대 수출 기록(500억6000만 달러)을 세웠다. 일반기계 수출액(535억7000만 달러)도 글로벌 경기 회복 바람을 타고 처음으로 5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주력 시장인 미국과 중국뿐 아니라 아세안 등 신흥시장 지역에서도 최대 수출 기록을 경신했다. 신북방 지역에선 두 자릿수

(17.7%) 수출 성장세를 기록했다.

다만 불안 징후도 감지된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88억6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8.3% 줄었다.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은 2016년 9월 이후 27개월 만이다. 반도체 공급이 안정을 찾은 데다 수출 단가도 하락하고 있어서다. 석유화학 제품의 월간 수출액도 유가 하락과 미·중 무역분쟁 등의 악재로 소폭(3.7%) 감소했다.

주력 품목의 글로벌 경쟁 확보가 당면 과제다. 지난해 무선통신기기와 가전 수출은 글로벌 경쟁 심화로 각각 22.6%, 18.3% 급감했다. 디스플레이 수출 역시 중국발(發) 저가 물량 공세로 9.9% 줄었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새 해  
함께 해  
행복 해

2019년 새해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대기업-벤처, 상생 파트너로... 상설협의체 만들어야”

##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2019년에는 벤처기업이 삼성이나 애플 같은 대기업 앞에서 다리 꼬고 앉아서 협상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야 국내 벤처업계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장기적 발전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1일 경기도 판교에 있는 지문 인식 보안 시스템 전문업체 크루셀텍 본사에서 만난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크루셀텍 대표)의 말은 단호했고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는 국내 벤처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선결조건을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지목했다.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벤처기업의 기술을 놓고 대기업이 얼마를 지불할 지에 대해 대등한 논의와 협상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회장은 “벤처기업의 기술을 존중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합의'가 존재하지 않고는 벤처기업들은 계속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이투데이 DB

◇대기업과의 상설협의체 구성 속도별 것 = 안 회장은 대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모인 상설협의체가 반드시 필요하며 2019년에는 이를 구성하는 데 속도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앞서 벤처기업협회와 다른 국내 벤처단체들이 결성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지난해 8월 삼성을 비롯한 5개 대기업과 대·중소기업 간 인수합병(M&A) 활성화 등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취지의 상설협의체를 만든다고 발표했었다.

당초 9월에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과 벤처기업협회가 첫 만남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무산됐다.

안 회장은 “대기업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고 가능한 이른 시간 내에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키포인트 회의를 제안해 이에 대한 대기업 측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현재는 5개 대기업에 제안한 상태이지만 향후 10대 그룹으로 확대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벤처기업 생태계와의 결합으로 풀어 나갈 계획”이

“협력이익공유제로 기술벤처 고사 부작용 잇따라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 탈피... 공정경제 기반 마련 금융권, 담보·연대보증 폐지 등 적극 검토해야

라고 설명했다.

상설협의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안 회장은 “공정경제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돈 많은 회사가 작은 회사를 도와주는 게 상생이고 공정경제인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다”면서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처럼 당연히 라운드테이블에 앉아 회사 가치를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상생이고 공정경제다. 대기업이 지금처럼 '내 밑의 하청'이라는 의식은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벤처기업도 반대하는 '협력이익공유제' = 안건준 회장은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 벤처기업 간의 상생 차원에서 추진 중인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

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 벤처기업 간의 상생을 위한 정책은 예전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며 “이익공유제 자체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100% 선의로 생각하지만 벤처기업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안 회장은 “탁상공론에서 나온 안이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안 회장은 정부가 중소기업을 돕겠다는 취지에서 내놓은 정책이 오히려 부작용이 된 예로 대기업이 중소기업들에 기술 탈취를 할 수

없도록 만든 상생법안을 들었다. 오히려 기술 위주의 제조벤처기업을 고사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대기업이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을 독점적으로 쓰라는 것이었지만 기술을 개발한 기업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겼다는 것.

안 회장은 “대기업이 납품받는 중소기업 외에 다른 회사에도 해당 부품을 똑같이 만들어 오라고 한 뒤 비교를 한다. 그러면 먼저 기술개발한 업체는 개발비가 들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개발비를 안 쓴 다른 업체가 납품을 하게 되는 일이 다반사였다”라며 “결국 최근 몇 년간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국내 혁신벤처가 다 사라졌고 누구도 기술개발하려고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익공유제도 비슷한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게 안 회장의 의견이다. 그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외국인 주주 비율이 50%가 넘기 때문에 주주가 이익공유제에 해당되지 않는 중국 기업의 제품을 납품받으라고 하면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고 결국 국내 중소기업들이 다 망할 수 있다”며 “선의는 분명히 좋으나 부작용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충분한 대화를 통해 많은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서두를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기업경영은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 힘들어도 미담이 되지만 실패하면 악몽이 된다”고 꼬집었다.

◇서두르지 않으면 일본·중국 사이에서 '넛크래커' 된다 = 안 회장은 벤처기업협회가 2019년 역점을 뒀던 추진할 또 다른 사업으로 기업 규제 해소와 '기업 기살리기'를 꼽았다. 우선 기업 규제 해소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벤처기업협회를 비롯해 이노비즈협회 등 13개 단체가 구성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022년을 목표로 '혁신벤처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을 2017년 제안했다. 혁신·벤처생태계의 목표를 비롯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로드맵·세부 정책 과제로 구성된 해당 계획은 작년까지 총 90개 과제가 해결됐다.

안 회장은 “2019년에는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제안한 160개 규제혁신 과제 중 해결되지 않은 70개를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협회가 서두르는 이유는 2019년이 국내 벤처생태계를 개선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보기 때문. 안 회장은 “정부가 창업을 비롯해 각종 중소기업 지원책을 내놓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는 데 대한 기대감이 높다”면서도 “최근 일본과 중국의 벤처업계의 움직임이 감안해 봤을 때 국내에서 벤처기업에 유리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으면 일본, 중국 사이에서 국내 벤처업계가 '넛크래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기술 위주 창업 많아져야 = 안 회장은 게임이나 요식업 등 상대적으로 단순한 스타트업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 경제에 더 큰 보탬이 되려면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제조벤처의 창업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 위주의 창업을 하려면 정부 출연연의 연구원이나 교수 등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서야 하고 그만큼 어려운 업종에서 창업을 해야 장기적으로는 더 성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기술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금융권의 '안전망 확보'를 제안했다.

그는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과 지원을 늘리는 만큼 금융권에서도 대출 시 담보 요구나 연대보증 폐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며 “기업이 잘될 때는 서로 돈 빌려 가라고 하면서 상황이 나빠지면 앞다퉈 자금 회수를 하려 하는 '비 올 때 우산 뺏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창업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부탁하자 그는 “세상에 없던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는 없기 때문에 종전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어떻게 융합하느냐가 사업 아이템 선정의 핵심”이라며 “한번 해볼까 하는 창업이 아니라 모든 실패 가능성을 다 생각하고 자금 마련 방법부터 마케팅까지 최대한 상세하게 계획서를 만들어야 실패 가능성을 10분의 1,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천연가스로,  
깨끗하 Go 안전하 Go

깨끗하고 안전한 천연가스로  
내일은 더 맑고 행복한 세상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일 맑음  
한국가스공사

# 자영업자 “주휴수당 부담에 알바 대신 내가 더 일해”

## 최저임금법 시행 현장 반응

2019년부터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수당 시간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사실상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시작됐다. 31일과 1일 현장에서 만난 자영업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 주휴수당의 부담이 크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미 주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고용을 실행하는가 하면, 고용 인력을 최소화하고 가족이나 친척끼리 운영하는 등 생존 전략에 골몰하고 있었다.

일부 업종에서는 1일부터 가격 인상을 단행한 사례도 나왔다. 사실상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현실화되면서 앞으로 가격 인상 사례는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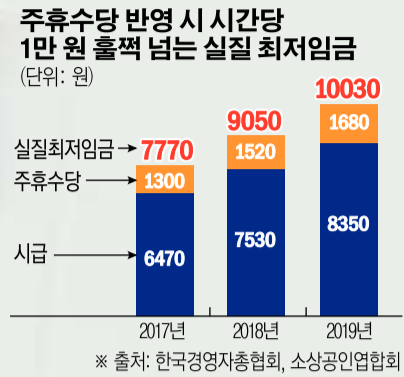
서울 마포구에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는 “작년까지는 평일 알바 2명, 주말 알바 2명 썼는데 최저임금 8350원을 앞두고 작년 말부터 평일 알바를 4명으로 늘렸다. 주휴수당이 너무 부담돼서”라고 말했다. 평일 알바는 주 15시간을 넘지 않게 격일로 하루 4시간가량 근무하게 하고 토요일에 나오는 주말 알바는 6시간씩 근무하도록 한다는 것. A씨는 “알바 근무 시간이 짧아지니 아침 7시

울해부터 최저임금 ‘사실상 1만원’ 주 15시간 안 넘기려 ‘알바 쪼개기’ 인건비 부담에 가격 인상 부작용도 “주 40시간으로 완화해달라” 성토

에 직접 문을 열고 밤에 매장 정리까지 직접 하는 날이 많아졌다”고 토로했다.

영등포구에서 ‘GS25’를 운영하는 B씨는 “알바한테는 주휴수당까지 더 줘야 해서 하는 수 없이 친척끼리 일한다”며 “심야 영업도 줄이고 싶지만 위약금 물어야 되고, 근처 편의점은 여는데 우리만 안 열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편의점 점주가 원치 않는 심야영업을 금지하는 업계 자율 규약이 발표됐지만 실제 현장에선 꿈도 못 꾸다. 아직 변한 게 없다”고 덧붙였다.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C씨는 올해부터 주 5일에서 주 6일로 근무일을 하루 더 늘릴지 고민 중이다. 그는 “평일은 혼자 일하고 주말 이틀만 12시간씩 일하는 알바 1명 쓰는데 이제 주휴수당 줘야 한다고 하더라. 주휴수당 안 주고 인건비 아끼려면 내가 하루 더 일하고 알바는 주말 하루만 써야 되는데 체력적으로 너무 무리가 갈 것 같다”고 걱정했다.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D씨는 “주변 매장들 보니 쪼개기 알바 많이 쓰긴 한다. 주 2일 7시간씩 여러 명 쓰는 식”이라며 “주휴수당 기준 15시간은 너무 작다. 개인적으로 이 기준을 40시간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알바사원도 4군데 이상 일해야 돼서 계속 여러 매장 전전하다 보니 고생한다. 하지만 업주 입장에서는 지출을 줄여야 하니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고 말했다.

종로구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E씨는

“주말 이틀 8시간씩 알바 2명을 쓰고 있는데 새해부터 (주휴수당 때문에) 사람을 늘리고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할 것 같다”며 “이것도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시간은 못 줄이고 서빙만이라도 줄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청담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F씨는 “본래 남편이 하루 매장에서 10시간을 근무하고 아르바이트생을 2명 썼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알바 비용이 부담돼 평일은 나랑 맞고대(각 12시간) 근무한다. 주말에만 알바를 쓰는데 이때도 남편

은 6시간가량 매장에 나간다. 아이들을 다 키우긴 했지만 둘이 집에서 얼굴 보기 어려워졌다. 노후가 더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여의도의 한 프랜차이즈 미용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1일부터 전체적으로 염색 5000원, 파마 1만 원가량 올리는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미용실 관계자는 “파마와 커트의 경우 원래 4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 4000원(10%) 올렸고 뿌리염색도 5만2800원에서 5만5200원으로 5%가량 올렸다”고 말했다. 유통팀 yhh1209@

## 이투데이·창업경영연구소 공동 선정 '기해년 창업 키워드'



## 10곳 중 7곳, 5년도 못 가는 게 현실 타 업종간 결합·인건비 절감이 살길

### 2019 창업 트렌드

2017년 한 해 동안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1만1000개가 늘어났다. 전국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수는 18만1000개에 달하며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 창업자까지 포함할 경우 전국의 소상공인 수는 130만 명에 육박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서비스업 사업체의 구조와 분포 및 경영실태 조사' 결과다. 그만큼 창업에 뛰어드는 이들이 많은 셈이다. 그러나 창업보다 어려운 것이 수성이다. 창업 후 5년까지 살아남는 창업자는 28% 수준에 불과하다. 창업 전 충분한 시장조사와 아이템 선정, 상권 분석이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투데이가 창업컨설팅 기업인 창업경영연구소와 함께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2019년 기해년 창업 트렌드를 조사해봤다. 올해 창업의 키워드는 △컨버전스 △합리적 가격 △솔로이코노미 △뉴트로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대표된다.

한 점포에서 수익 극대화를 위해 두 아이템을 취급하는 컨버전스는 과거에도 창업시장에 존재해왔다. 숯불매장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올해는 보다 다양한 형태로 컨버전스가 진화할 전망이다. 동종 업종은 물론 이종 업종의 결합 시도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시간과 공간적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소비성향이 늘면서 한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을 원하는 소비자로 인해 복합쇼핑몰이 주목받고 있다. 복합쇼핑몰은 컨버전스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창업의 목적성 중 가장 꼼꼼하게 점진할 사항은 투자 대비 수익성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오르면서 수익성에 대한 창업자들의 고민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에 따라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질 전망이다. 몇 년 전부터 증가하고 있는 키오스크를 활용한 점포 운영 형태가 커피숍, 분식점을 넘어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의 증가로 이들을 겨냥한 창업도 유망하다. 자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1인 가구를 위한 창업 아이템은 여성 전용 헬스클럽, 요가브랜드, 반찬전문점, 일인여행업 등이 있다.

뉴트로도 눈여겨볼 창업 키워드다. 복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인 뉴트로 트렌드는 창업자들의 매장 인테리어에 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진다. 레코드를 전사하거나 키덜트가 열광하는 피규어 등을 활용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공간을 바꿀 수 있다.

자영업자도 변화가 필요하다. 주먹구구식 경영이 아닌 4차 산업혁명의 시류를 따라야 한다. 특히 빅데이터를 통한 매장 운영은 필수다. 매장 내 포스를 통해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재해석해 소비자 성향을 읽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상현 창업경영연구소장은 “2019년은 어느 해보다 생존을 위한 트렌드가 대두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창업자들은 아이템 선정도 신중해야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지면서 창업 후 운영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통팀 기자 yhh1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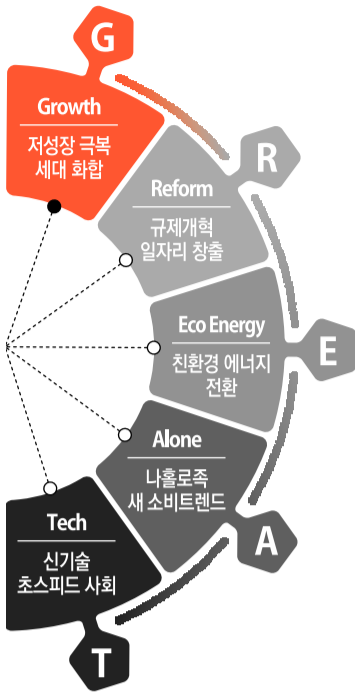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9년에도 LS는 더 큰 성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기해년 황금돼지처럼 대한민국이 더욱 밝게 빛날 수 있도록 LS도 진정한 파트너 정신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하여 더 큰 가치를!  
**LSpartnership**

# “수치는 괜찮아” 경제지표만 바라보다 이 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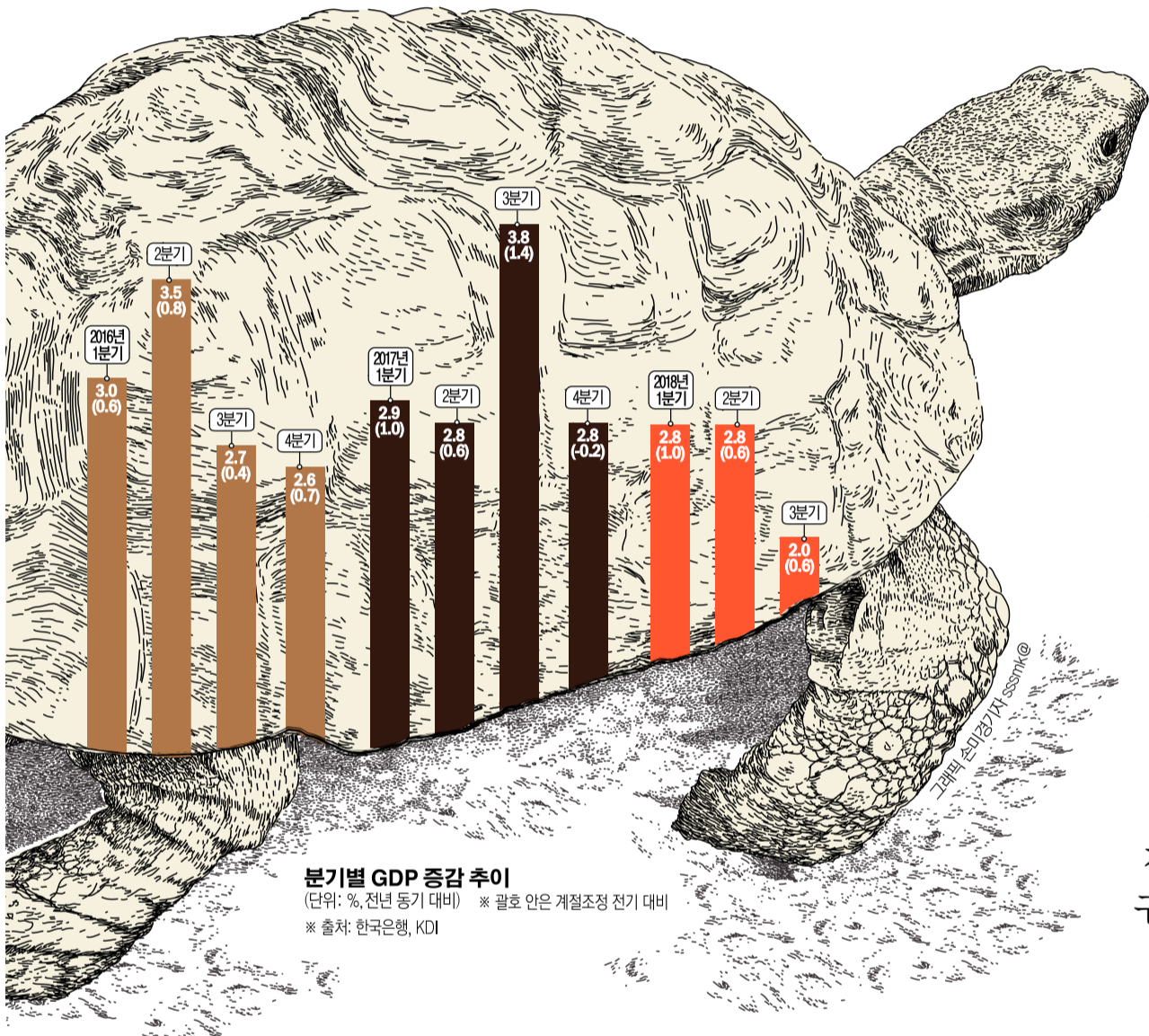
## 저성장 늪에 빠진 대한민국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사라졌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반도체 수출 덕분에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내수는 일찌감치 마이너스로 꺾였다. 혁신을 미룬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고전하고 있고, 기업의 위기는 가계의 위기로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경직적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 선행 정책으로 그나마 남아 있던 시장의 의욕을 꺾었다.

GDP 증가율로만 보면 한국 경제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양호한 흐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12월 유로존(-0.1%)과 일본(-0.2%), 중국(-0.1%) 등 주요국들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9월 전망보다 하향 조정한 가운데, 한국의 전망치는 2.8%로 유지했다. 총고정자본 형성이 감소로 전환되고 실업률 상승 폭이 확대되겠지만, 수출 증가가 이를 상쇄할 것으로 봤다. 국내 경제 전문가들도 “지표상으론 위기로 보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체감경기는 바닥이다. 한국경제 연구원이 최근 성인 1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0.9%

가 올해 경제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이 결정적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투자 등 내수의 3분기 성장 기여도(전 분기 대비)는 -1.3%P를 기록했다. 1분기 1.2%P에서 2분기(-0.7%P) 감소로 전환돼 3분기에는 감소폭이 더 커졌다. 반면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1.7%P였다. 수출 증가는 소비나 투자에 비해 체감경기와 밀접하지 않다. 그 효과가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한정되고, 고용유발 효과도 작아서다. 수출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2분기 대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7.8%로 1년 전보다 0.4%P 상승했으나

중소기업은 7.3%로 0.1%P 하락했다. 수출의 고용유발 효과(최종수요 10억 원당)도 2014년 기준으로 8.1명으로 소비(15.2명)의 절반에 불과했다. 체감경기가 살려면 소비와 투자가 늘고,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가계소득)가 늘어다시 소비와 투자를 늘리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2011년 이후 내수는 늘 그늘이었다. 주력산업인 조선업과 자동차업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균열이 최근 구조조정 등으로 번지면서 전반적인 내수가 침체됐다. 수출의 GDP ‘뺨뺨기’에 고무돼 정부가 적기에 대응을 못한 것이다. 수출이 호황이던 2017년에도 조선·자동차 경기는 내리막이었다. 통계청의 ‘2017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를 보면, 조선산업은 2016년 수주절벽의 영향으로 선박 건조량이 감소하면서 출하액은 50조 9000억 원으로 24.7%, 부가가치는 16조 2000억 원으로 20.6% 급감했다. 사업체 수도 전년 1589개에서 1420개로 10.6%(169개) 줄었다. 그러나 사업체당 부가가치는 사업체 수가 줄어든 덕에 전체 부가가치 감소 폭보다 작은 11.2% 감소에 그쳤다.



분기별 GDP 증가 추이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 괄호 안은 계절조정 전기 대비 ※ 출처: 한국은행, KDI

## 산업별 출하액 및 부가가치 증감

	2016년	증감	2017년
자동차	출하액	-1.8%	193,149
	부가가치	-2.2%	55,310
조선	출하액	-24.7%	50,887
	부가가치	-20.6%	16,025
섬유	출하액	-2.9%	19,403
	부가가치	-3.3%	7,211

GDP 증가율, 반도체 수출 덕에 다른 선진국보다 양호한 흐름 보이지만 2011년부터 내수 주력산업 ‘위기 신호’

수출 증가는 소비나 투자에 비해 체감경기와 밀접하지 않아 실제 서민의 삶, 지표와 달리 ‘벼랑끝’

‘투자·고용·소비’ 선순환 시급한데 기업활동 막는 규제로 산업 경쟁력 약화 구조적 문제 근본적 해법, 정부에 달렸다

자동차산업도 출하액(-1.8%)과 부가가치(-2.2%) 모두 감소세를 이어갔다. 연관산업인 철강산업은 철강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로 출하액이 14.1%, 부가가치는 18.6% 증가했지만, 자동차산업은 자동차 및 수출이 부진하면서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섬유산업도 출하액이 19조4000억 원으로 2.9%, 부가가치는 7조2000억 원으로 3.3% 감소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0년 호황이 끝나고 2011년부터 생산성 지표가 나빠지기 시작했다”며 “주력산업 침체 등 구조적 문제가 사실상 이때부터 시작된 건데, 혁신이 중요하다는 데에는 누구나 동의하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조적인 문제가 커 올해에도 소비와 투자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본다”며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내놨는데, 지난해보다 좀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기적으로 내수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주력산업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신시장에 진출하거나 생산품목을 전환하는 게 불가능하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경직적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 실패’의 충격이 올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 하락은 계속해서 진행돼왔고, 이런 와중에 산업 재편은 수년간 지연됐다”며 “뭘 할지는 기업이 선택해야겠지만 기업들이 신산업에 진출하거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의욕을 북돋는 건 정부의 역할인데, 그동안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무엇도 해결될 게 없는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비용 충격만 줬다”면서 “구조적 문제를 현 정부의 탓으로 보긴 어렵지만, 그 문제를 키운 책임은 현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세종=박은평 기자 pepe@

## 세대별 일자리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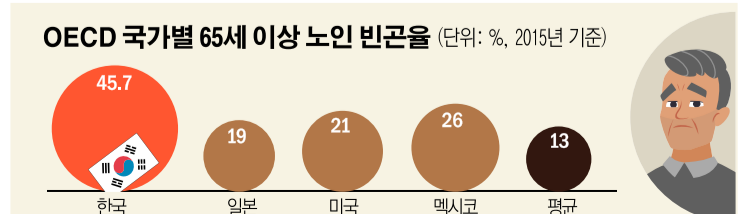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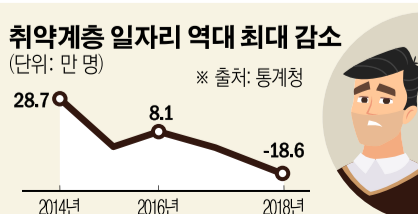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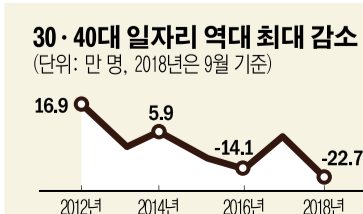
지난해 11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5개월 만에 10만 명대를 회복했지만, 전년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실업자 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 이후 최대 수준이다. 청년층 실업률 역시 70만 명이 넘는 취업준비생이 실업 통계에서 빠져나간 일종의 착시 현상을 감안하면 최악 수준이다. 상황이 이러니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모두 가장 큰 걱정거리는 ‘일자리’다. 지난해 12월 2일 보건복지부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3명 중 1명(35.9%)은 현재의 걱정거리로 ‘일자리’를 꼽았다. 경기 침체와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인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 다양한 요인이 맞물려 장기화한 고용난에 국민의 불안은 더해 가고 있다. 청년, 중년, 노년층의 세대 간 일자리 고민은 제각각이다. 일자리를 놓고 세대 갈등도 야기된다. ◇공기업·대기업 선호하는 청년들… “눈이 높은 게 아니라” = 한국경제연구원

- 20대 공기업·대기업만 쫓아 빚더미 스펙 쌓기
- 3040 직장 잃고, 창업했더니 ‘최저임금 폭탄’
- 5060 은퇴 후 먹고살 길 막막 ‘저임금 재취업’

‘2018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취업하고 싶어 하는 기업 유형은 공기업(25%), 대기업(18.7%), 중견기업(14.2%), 정부(13%) 순이었다. 높은 연봉과 정년 보장, 안정된 직장을 꿈꾸는 청년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다. 청년들이 공기업, 대기업의 좁은 문을 뚫기 위한 취업 준비 기간은 길어지고 실업은 늘고 있다. 공기업 취업 준비 중인 A 씨는 “학자금 대출에 취업 준비 교제비, 생활비 등 빚부터 갚아야 한다”며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차이가 줄면 눈을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은행 경제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중소기업 평균 임금은 대기업의

55%에 그쳤다. ◇제조업·자영업 위축… 3040대 일자리 황청 = 통계청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주력산업인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고,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40대 취업자 감소도 이어지고 있다. 3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9만8000명, 12만9000명 줄었다. 30대는 2017년 10월 이후 14개월째, 40대는 2015년 11월 이후 3년째 감소세다. 이들 연령대의 인구 감소도 영향이 있지만 제조업종에 수요가 없는 게 현실이다. 3040대 고용지표 약화는 주력 제조업과 자영업 위기와 맞물려 있다. 조선·자동차

등에서 단행되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대안으로 자영업 문을 두드리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문을 닫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은퇴 후 저임금 일자리에 빈곤을 OECD 최고 = 60세 이상의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취업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은퇴 전 직업훈련이 부족하고, 고령 인력 수요의 일부 업종 편중 등으로 저생산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 ‘고령자 고용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65세가 넘는 고령층 재취업자 10명 가운데 3명은 청소나 경비직이다. 고령층의 직종별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는 청소와 경비가 31%로 가장 많았고, 50세 이상 재취업자 가운데 직전 고용기간이 5년 미만이면 대부분 청소·경비업종에 재취업했다. 이처럼 저생산성 일자리로의 재취업 때문에 65세 이상 빈곤율은 2015년 45.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 “주력산업 침체 성장 발목... 투자 늘려 신동력 찾아야”

## ‘저성장 탈출’ 전문가 제언

우리 경제가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저 성장에 갇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주요 정책 및 민간연구기관들은 작년과 올해 경제성장률이 각각 2.8~2.6%, 2.6~2.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성장의 터널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성장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처방전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기업들의 투자 활력 회복과 구조개혁을 통한 주력산업 재편,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한 저출산 대책 강화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산업분석팀장은 기업의 투자 활력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성장의 핵심요소인 설비투자(전기 대비)는 작년 2분기 5.7% 줄었고 3분기에도 4.7% 감소했다.

정민 팀장은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국내 주력산업의 성장세가 정체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이를 대신할 새로운 성장동력이 부족해 투자 부진이 나타나고 있다”며 “산업간 유발 효과가 높고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신성장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재 추진 중인 신성장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과 사업화 추진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한 환상보다는 국내 주력 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신기술을 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팀장은 “기업투자가 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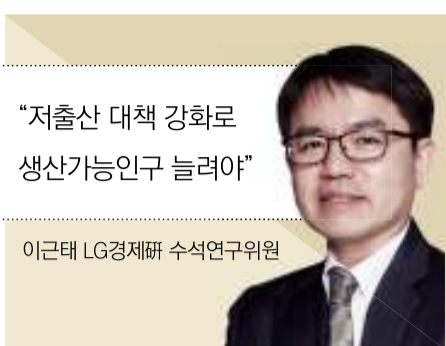
“기업 투자 활력 제고로 성장 잠재력 확충해야”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팀장



“구조개혁 통한 산업 재편 최저임금 속도조절 필요”

성태윤 연세대 교수



“저출산 대책 강화로 생산가능인구 늘려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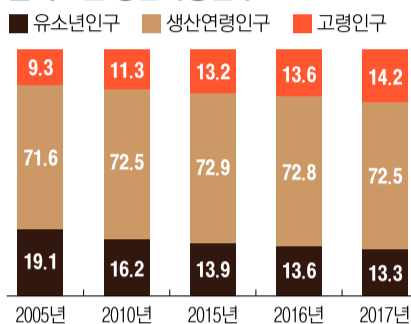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경제민주화 정책 통해 중소기업 성장 여건 조성”

전성인 홍익대 교수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 (단위: %)



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에 적극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투자 규제를 개혁하고, 세제 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에 머물고 있는 원인을 국내 주력산업의 국제경쟁력 상실에서 찾았다.

성 교수는 “우리 주력산업이 국제경쟁력을 잃다 보니 신성장동력 창출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이를 해결하려면 구조개혁을 통한 주력산업 재편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산업 재편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각종 장벽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직적인 국내 노동시장 구조에 급진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더해진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성 교수는 “인적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경직적인 노동시장에서는 생산성을 갖춘 산업과 기업으로의 재편이 이뤄지기 어렵다. 여기에 임금까지 증가하면서 이를 감당하기 힘든 기업들이 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고, 경직적인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구조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저출산 대책 강화를 통해 저성장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성장의 원인은 기

본적으로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15~64세) 급감 때문이란 판단에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 전년 대비 1만 명 줄어든 데 이어 2020년에는 24만 명, 2024년에는 34만 명까지 감소폭이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 위원은 “저출산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데는 20년이 걸리겠지만 문제는 당장의 수요를 위축시킨다는 점”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출산장려금뿐 아니라 보육시설 지원 등 출산 관련 정부 지출이 획기적으로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경

제의 저성장 기조를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최근의 저성장 추세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생긴 것인데 저성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며 “우선적으로는 국민에 저성장의 실체를 솔직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나마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 정책의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정부의 재정적 여유가 생기면 경제 주체의 세금 부담을 줄여 소비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 ‘일자리 선진국’ 정책 살펴보니

### 獨 ‘유연근무제’로 청·장년 일자리 균형 이스라엘, 年 100만개 ‘新산업’ 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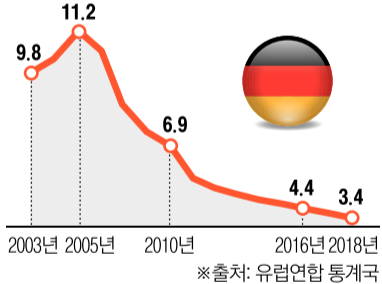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해 9월 발표한 2017년 한국의 실업률은 3.7%로 10년 전보다 0.5%p 올랐다. 전 세계 평균(5.3→5.5%)보다 수치는 낮지만 상승 폭은 더 가파르다. 이 기간 독일과 이스라엘은 실업률을 각각 4.9%p, 5.2%p 낮췄다.

독일이 찾은 일자리 해법은 근무 형태 유연화다. 통일 이후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던 독일은 2002년부터 민관이 함께 노동시장 개혁에 나섰다. 고용 유연성을 골자로 한 ‘하르츠 개혁’이다. 미니잡, 미디잡 등 근무 시간과 형태를 다양화한 여러 유연근무제 도입이 핵심이다. 대신 최저임금제와 부모수당을 도입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험 지원을 확대해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의 균형을 맞췄다.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니 청장년 일자리가 조화를 이루기 시작했다. 기업이 경기 상황에 맞게 기존 노동자의 노동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덕분에 인건비를 크게 늘리지 않고도 청년을 채용할 수 있는 여유도 생겼다. 기존 노동자도 노동 시간이 줄어든 대신 경기 변동에 따른 실직 불안이 줄어들었다. 유연근무제로 숙련공의 근속이 늘어나니 기업 생산성도 안정화되고 세대 간 기술 이전도 원활히 이뤄졌다. 독일은 지금 유럽의 모범국가로 변모했다.

이스라엘은 기존 파이를 나누기보

하르츠 개혁 이후 독일 실업률 변화 (단위: %, 2018년은 8월 기준)



다 신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파이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 10%대 실업난에 시달리던 1990년대부터 정부 연구개발기관인 이스라엘 혁신청과 민관합동 벤처펀드인 요즈마펀드를 중심으로 신산업 발굴, 지원에 나섰다. 기술 개발은 물론 기간 대학과 연구소 등에서 잠자고 있던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많은 투자를 했다. 덕분에 ICT, 바이오, 항공 등 유망 신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할 수 있었다.

기업이 성장하니 일자리도 늘어났다. 최근 3년간 이스라엘의 일자리는 해마다 100만 개 넘게 늘고 있다. 특히 인력 수요가 높고 있는 신산업 분야에선 일손 1만 명 넘게 모자라 아우성이다. 일자리 시장이 넓어지자 신산업에 익숙한 청년층 취업률은 물론 장년층 취업률까지 올랐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 노동자 중 장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10%대에서 지난해 20%로 뛰었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금융그룹

# 외국인, 기관 매매 종목

## 이제는 실시간이다!

증권사 실시간 수급 솔루션 **THE HINT**

‘더 힌트’는 실시간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를 추적해  
종목을 포착하고 매매의 타이밍을 찾아내는 획기적인 서비스입니다

수급차트

종목진단

누적금액

누적강도

시장분석

\*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유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식거래시 수수료율은 기준 수수료율(0.014~0.5%) + 0.09%이며, 기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해당금융투자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당사 및 공식적인 조사 분석자료를 공표하는 것이 아니며, hints서비스를 담당하는 (주)증권리더데이터연구소의 책임에 운영됩니다. \* 본 서비스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한 보조시스템으로 수익 감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투자협회 심사필제 18-00473호(2018.01.25~2019.01.24) CC비즈니스-180124-450

# 김정은 “美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돼 있다”

### 신년사서 2차 북미정상회담 의지 밝혀... “美, 오판하면 새 길 모색” 남북 관계엔 “전제조건·대가 없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용의” 한미 연합훈련·美 전략무기 전개 중지 요구... 靑 “메시지 긍정적”

김정은(사진) 북한 국무위원장은 1일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1월 중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도 커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조선중앙TV를 통해 발표한 신년사에서 “(미국이) 우리의 인내심을 오판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올바른 협상 자세와 해결 의지

로 임하면 유익한 중착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비핵화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미국의 상응 조치가 없으면 핵무기 개발 등을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그만큼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는 불변한 입장이자 나의 확고한 의지”라며 “미국이 상응한 실천 행동을 한다면 비핵화는 빠른



속도로 전진할 것”이라고 거듭 상응 조치를 강조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며 “북남 사이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하고 온 겨레가 북남 관계 개선의 덕을 실지로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남북 경제협력 재개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남북 경협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에

서 두 정상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가 필요하다. 지난해 말 기대했던 김 위원장 서울 답방이 연초에 이뤄질 개연성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1월 중 김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한다면 국제사회에 비핵화 의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중국이 참여하는 다자협상 추진 의사도 적극적으로 나타냈다. 그는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 보장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이 이번 신년사에서 한미 연합훈련과 미국 전략무기 전개 중지를 요구해 그 의도에도 관심이 쏠린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태에서 발원한 점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미국 내부에서 북한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협상 카드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의점 청와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확고한 의지는 사해 한반도 문제가 순조롭게 풀리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보낸 친서에 대한 답장 전달과 1월 서울 답방 논의를 위해 대북 특사를 파견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신동민 기자 lawsdm@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남산 팔각정에서 해돋이를 본 후 시민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청와대

## 文 대통령, 의인들과 남산 해맞이... 국민과 통화도

### “황금돼지해, 가정·직장 등에 복 가득 들어왔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의인 6명과 서울 남산 해맞이 산행으로 새해를 시작했다. 국민과의 전화통화로 특별한 신년 인사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과 지난해 의인으로 선정된 박재홍·유동운·박종훈·안상균 씨와 민세은·황현희 양 등 6명의 의인과 남산 해맞이 산행을 했다.

문 대통령은 해맞이를 보러 온 시민들에게 “새해는 ‘황금돼지해’라고 하는데 황금돼지는 풍요와 복을 상징한다고 한다”며 “여러분 가정마다, 또 여러분 직장에도, 우

나라에도 풍요와 복이 가득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새해 인사를 건넸다.

산행 후 문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서 의인들과 떡국으로 조찬을 하면서 의인들 각자가 의로운 행동을 하게 된 당시 상황과 동기, 이후 달라진 삶 등에 대해 물어보고 이야기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동료들에게 모범이 되는 국민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와 새해 인사를 전했다.

새해에 100세를 맞은 생존 애국지사인 임우철 지사와의 전화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올해가 3·1운동·임시정부 100주년인

다. 생존 독립운동지사로서 감회가 새로우시겠다”며 감사 인사를 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홍천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3세 아이를 구조한 강원도 홍천소방서 소방대원 6명에도 전화통화를 했다.

이와 함께 고 이태석 신부의 권유로 한국에 들어와 의과 공부를 하는 남수단공화국 출생의 토마스 타반 아콧을 비롯해 지난해 12월 서귀포 여객선 좌초 시 승객 전원을 구조한 구조선평 선장 양정환 씨와도 전화통화를 했다. 또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3000m 계주 금메달리스트이면서 심석희, 최민정, 이유빈 선수를 잘 이끌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 김아랑 선수와도 인사를 나눴다. 신동민 기자 lawsdm@

## 신재민씨 폭로-기재부 반박-신씨 재반박 국채 발행 강요 ‘진실게임’

### 차관보 지시 내용 카톡 공개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신재민(32·행정고시 57회)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증거가 더 있다”며 당시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을 캡처(사진)해 공개했다. 특히 그는 각종 보고서와 차관보의 지시 내용 등 적자재무 발행과 관련한 증거를 더 가지고 있다며 추가 공개 의사를 밝혔다.

1일 고려대 재학생·졸업생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 게시판에 [신재민] 국채 관련 카톡 증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카톡방에서 차관보는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올해 추경 부대의견 0.5조 이미 갚았는가?”라고 말했고, 대화 당사자는 “네 이미 상환 조치하였습니다”라고 답했다.

기재부는 2017년 11월 15일 예정된 1조 원 규모의 국채매입 계획을 하루 전날 갑자기 취소했다. 당시 국채업무 담당 차관보인 재정관리관은 조규홍 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올린 고파스 글을 통해 “카톡 전후 상황은 (김동연) 부총리의 8조7000억 원 풀(전액)로 추가 (국채를) 발행하라는 지시를 받고서 국채 시장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규모를 모색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측은 지난해 12월 31일 브리핑을 열어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는 사실이 아니며, 토론 끝에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 캡처로 기재부의 반박을 재반박한 것이다.

신 전 사무관은 앞으로 추가 증거를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적자 국채 관련 당시 카톡, 보고서들을 내일이나 모레 영상을 찍으며 다 공개하겠다”며 “영상은 10편까지 생각 중이고 3편 이후로는 기재부 관련 이야기, 공무원 조직 구조, 예산 결정 과정, 법안 등에 대한 이야기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 관련 추가 폭로나 KT&G 건 증거는 더 없다”고 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 여야, 새해 첫날 신년 인사회서 포부 다짐 “내년 총선 압승” vs “국민에게 희망을”

여야는 2019년 첫날인 1일 신년 인사회(단배식)를 열고 각오를 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 신년 인사회에서 집권 3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는 결의와 함께 21대 총선의 압도적 승리를 다짐했다. 이해찬 대표는 “재작년에는 정권 교체, 지난해에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며 “민주당이 지역당이 아닌 전국 정당을 만들어냈다. 이것을 기반으로 내년 총선에서 아주 크게 압승하는 성과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올해 잘 준비해 내년 총선에서 크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과업이라고 본다”며 “2022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해 민주당이 이 나라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도부

는 현 정부에 비판의 날을 세우며 제대로 된 야당 역할로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 비판뿐 아니라 국민께 비전과 희망을 드릴 정치를 하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한 해 동안 또 한번 열심히 달려 국민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우리는 무능한 진보를 물리치고, 말로만 보수라고 하면서 분열하고 내용을 갖지 못하는 허망한 보수를 물리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국민을 정치 개혁의 길로 이끄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농성 중인 금속노조 파업노동자들에 대해 “촛불 시민과 함께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도 지상에서 노동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정 기자 jh@

## “美 법인세 감세, 기업·주주만 과실 챙겨”

### 이준구 교수 “감세정책 통한 투자 증가, 신자유주의의 허상”

“법인세율을 낮춰줌으로써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이념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현재 경제학계의 정설은 법인세를 통해 투자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감세 정책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과실을 누가 주로

가져가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감세가 투자 증가로 이어지고 그 결과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내는 한에서 감세 정책이 정당화될 수 있다”며 “그러나 (미국) 감세 정책 실시 후 1년이 지난 지금의 중간성적표를 보면 그런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졌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 오직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기업과 주주들이 감세 정책으로

인한 과실을 거의 모두 주머니에 챙겼다는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35%였던 법인세율을 21%로 낮췄다. 이를 통해 미국 기업들은 2000억 달러에 이르는 법인세를 절약할 수 있었다. 골드만삭스 전망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이 지난해 자사주 구입액은 무려 1조 달러에 이른 다.

이 교수는 “기업이 사내에 유보된 자금을 자사주 매입에 썼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주들에게 그만큼의 배당을 지급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가 kimnh21c@

# HAPPY YOUR YEAR

2019년, LG가 소망하는 건  
고객의 더 행복한 한 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G20 의장국 맡은 日 ‘글로벌 화합’ 무거운 숙제

## 셋다운 속 새해 맞은 美 여야 ‘장벽예산’ 기싸움



### 새해 G20 주요 회의 일정

1월 17~18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실무급 회의	도쿄
4월 11~12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워싱턴
6월 8~9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후쿠오카
6월 28~29일	G20 정상회의	오사카
11월 22~23일	외무장관 회의	나고야

### G2 무역갈등·보호주의·저성장 그림자 속 증재자 역할 주목 글로벌 경상수지 불균형 시정·개도국 인프라 개발도 조율

올해 G20 회의 의장국을 맡은 일본의 고민이 깊어 보인다. G2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글로벌 리스크로 부상한 가운데 세계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화합의 길을 유도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 때문이다.

G20 회의는 작년에 출범 10주년을 맞았다.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세계적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를 계기로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과 중국 등 신흥국 정상들이 그해 11월 처음으로 모여 G20이 출범했다. 당시 G20은 위기를 봉합하기 위한 정책 공조로 일치단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10년. 리먼 사태는 중산층의 몰락을 가속시켜 미국과 유럽에서 대중영합주의를 탄생시켰다. 성난 노동자들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기성 정치 타파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이후 트럼프 정권은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중국에 대해 강경책으로 전환, 무역전쟁을 감행하고 있다.

보호주의의 대두와 세계적 저성장, 부채 팽창, 가상화폐의 폭주. G20 회의에서 논의되는 의제들은 대부분이 리먼 사태를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급기야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공동 성명에서 ‘보호주의에 대항한다’는 문구가 삭제되는 등 G20은 공조 면에서 기능 부전에 빠져 있다.

일본의 부담이 큰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이 G20 회의 의장국을 맡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에서 바통을 이어받은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은 “세계 경제의 과제에 대해 각국과 연계해 인함으로써 재활성화시킬 책임과 사명을 다할 것”이라며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아소 재무상의 ‘재활성화’라는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내포돼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국이 보호주의 자세를 강화하면서 G20에서 ‘1대 19’ 구도가 고착화, 이로 인해 정체된 세계 경제 성장을 향한 건설적 논의를 일본이 되살려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미·중 사이에서 불편한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이 미국과 등을 진 이후 일본 쪽에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중·일 정상은 작년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회담에서 다양한 경제 협력을 맺었다. 같은 해 12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가 미·중 양쪽에 “유익한 대화를 통해 G20 논의에 건설적으로 기여 하길 기대한다”는 호소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올해 G20 회의 의제 중 하나는 글로벌 불균형(경상수지 불균형)의 시정이다. 경상수지 적자는 미국이 가장 심각하다. 일본 측이 주장하는 건 불균형은 2국 간의 양자 협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일본은 2국 간이나 아니라 전 세계에서 문제를 파악하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각국이 자국의 저축과 투자의 균형을 검토하는 구조적인 개선을 제기할 방침이다.



“헬로 2019!”

미국 뉴욕 맨해튼의 타임스스퀘어를 찾은 관광객들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새해맞이 기념 행사에서 ‘2019’라고 적힌 안경을 쓰고 축제를 즐기고 있다. 이날 밤중에 열린 볼드랍(ball drop) 행사에서는 시계가 2019년 1월 1일 0시를 가리키기도 전에 원타임스퀘어 꼭대기의 볼이 터졌다.

뉴욕/로이터연합뉴스

또 다른 의제는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개발이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를 통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저소득 국가에 대한 대출을 늘렸다. 하지만 부채가 급증하는 한편, 개발 계획도 부실해 향만, 철도

개발이 무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G20 회의에서는 불투명한 대출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고, 채권국, 채무국 모두 대출 규제를 강화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배수경 기자 sue6870@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임시 업무정지(셋다운) 사태 속에 집권 3년차를 시작하게 됐다.

미국 민주당이 3일(현지시간) 의회 개원과 함께 장벽 예산을 뺀 법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민주당은 11·6 중간선거 이후 새롭게 출범하는 하원 개원일인 새해 3일 국경장벽 예산을 제외하고 새로 짠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원을 장악하자마자 공화당이 다수당 시절인 지난해 말 하원을 통과한 단기지출법안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돼 패키지 법안이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전히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국경장벽 예산 50억 달러를 반영한 긴급 지출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 민주당 반대에 부딪혀 표결조차 못했다.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연방정부는 같은 달 22일 0시를 기해 셋다운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풍 트윗을 날리며 자신은 백악관에 있으니 민주당도 휴가에서 돌아와 장벽을 포함한 국경 보안 예산을 표결하라고 압박했다. 또 콘크리트 장벽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며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의지를 거듭 불태웠다.

이날로 열흘째를 맞아 해를 넘기게 된 셋다운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가 의회 운영의 미래를 예측하게 할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CNN은 재집권 준비에 시동을 걸며 속도를 내는 트럼프 대통령과 차기 대선에서 권력 탈환을 노리는 민주당의 일인자 낸시 펠로시 간 정면 승부 양상으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분석했다.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번이 없는 한 3일 첫 본회의에서 하원의장에 선출될 것이다. 임소연 기자 ronsoyeon@

동네 편의점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도

# 안녕?

“우리동네를 지키는 **아동학대 국민감시단** 이 되어주세요”

가벼운 인사처럼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는 아동학대예방 아동이 행복한 우리동네, 주위를 살피는 당신의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 ‘글로벌·디지털’ 앞세워 금융시장 불확실성 뚫는다

## CEO 신년사로 본 경영전략

금융지주·은행 최고경영자(CEO)들이 새해 주요 경영 전략 키워드로 ‘디지털’과 ‘글로벌’을 제시했다. 또 금리 인상과 경기 악화 등으로 새해 금융시장을 어렵게 전망하며, 위기 상황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장은 신년사에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경쟁환경과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금융산업 미래 전략을 세우기 쉽지 않다”며 “이럴 때일수록 금융산업이 기본으로 돌아가 ‘근본’을 강화하고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근심지무(根深枝茂) 원원유장(源遠流長)’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했다. ‘뿌리가 깊으면 가지가 무성하고, 샘이 깊으면 물이 멀리 흘러간다’는 뜻이다.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글로벌’과 ‘디지털’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적극적인 글로벌화로 국제경쟁력을 높여 금융산업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회사는 진출 지역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을 추구하

## 핀테크 기술·국제 경쟁력 확보 신성장동력 통한 업계 위기 극복 시대 변화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고 현지인 대상 영업 확대 등 지역 금융회사로 발돋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우리 금융회사들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금융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신년사에서 “위기의 순간 필요한 것이 바로 ‘새로운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대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코닥과 노키아가 몰락한 사실을 예로 들며 “핀테크 기업이나 인터넷은행이 우리를 따라오려면 멀었다고 생각하다가 코닥과 노키아 같은 운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글로벌 시장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김 회장은 “4년 동안 준비한 GLN(Global Loyalty Network)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며 “해외 어디서든 GLN을 통해 간편하게 결제한다면 글로벌 핀테크 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GLN은 하나머니 등 디지털 머니를 여러 나라에서 쓰는 글로벌 통합 플랫폼이다.

## 금융지주·은행 CEO 신년 사자성어



 <b>김태영 은행연합회장</b> 근심지무(根深枝茂) 원원유장(源遠流長) 뿌리가 깊으면 가지가 무성하고, 샘이 깊으면 물이 멀리 흘러간다	 <b>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b> 선즉제인(先則制人) 남보다 먼저 도모하면 능히 남을 앞지를 수 있다	 <b>손태승 우리은행장</b> 정익구정(精益求精) 뛰어난데도 더욱 뛰어난데 애쓴다	 <b>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b> 사변독행(思辯篤行) 신중히 생각하고 명확히 변별하며 성실히 실행하라
--	--	---	--

김 회장은 ‘사기’의 향우분기에 나오는 ‘선즉제인(先則制人)’ 정신을 강조했다. ‘남보다 먼저 도모하면 능히 남을 앞지를 수 있다’는 의미다.

손태승 우리은행장은 올해 창립 120주년과 지주사 전환을 맞이해 “고객의 사랑

에 보답하는 최고의 은행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6대 경영 전략으로 △고객 중심 마케팅 강화 △금융 명가(名家) 지배력 확대 △리스크 관리 △글로벌 금융시장 제패 △디지털 혁신 주도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꼽았다.

손 행장은 정익구정(精益求精)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해 “최고의 은행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익구정은 ‘뛰어난데도 더욱 뛰어나려 애쓴다’는 의미다.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올해

“제질 개선과 변화로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김 회장은 “환경 변화에 대응해 끊임없이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추진하고 파트너십 기반의 그룹형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올해 글로벌 경기 하강과 미·중 무역분쟁, 금리 인상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경영 여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중용” 예기 편에 나오는 ‘사변독행(思辯篤行)’을 인용했다. 신중히 생각하고 명확히 변별하며 성실히 실행하라는 뜻이다.

이새하 기자 shys0536@

## 정문국 신한생명 대표 선임에 뿔난 노조

### “보험 아닌 구조조정 전문가”

“보험 경험 없이 CEO만 해와 대표로 있던 회사 감원 주도 내정 철회까지 투쟁할 것”



에 따르면, 2014년 6월 ING생명 임직원 수는 1007명이었지만, 같은해 9월에는 808명으로 대폭 줄었다. 유 지부장은 “(정 대표는) 보험 전문가가 아닌 구조조정 전문가이고, 노사 갈등을 유발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울러 정 대표 내정과 관련해 신한지주에도 강한 불만이 쏟아졌다. 노조 관계자는 “(정 대표의) 검증도 이뤄지지 않았고, (지주의) 임시 이사회도 예전에는 3월쯤 주주총회 겸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같이 열렸는데 올해는 따로 이뤄진다”며 “절차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노조는 신한지주의 정 대표 내정 철회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집회 참여 인원은 100명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신한생명은 노조의 추후 움직임을 살펴본 뒤 공식 입장을 내놓을 방침이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없고, 현재 경영진에서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한금융지주는 올해 4월부터 오렌지라이프 인수를 조율해 지난해 9월 오렌지라이프 인수안을 의결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신한생명 대표로 내정된 정문국 오렌지라이프 대표(사진)에 대한 반대 기류가 거세다. 노조 측은 정 대표가 보험 전문성이 떨어지고, 주로 구조조정을 담당해 노사 갈등을 증폭시켰을 만큼 임명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생명 노조는 다음 날 오전 10시 서울 신한금융지주 앞에서 정 대표 내정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유정식 전국사무금융노조 신한생명 지부장은 이날 통화에서 “정 대표는 보험을 밑에서부터 경험한 사람이 아닌, CEO만 해온 사람”이라며 “기는 곳마다 구조조정을 한 뒤 회사를 팔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 보험의 본질을 모르는 분”이라고 질타했다. 실제로, 정 대표가 2008년 알리안츠생명을 맡았을 당시에 구조조정 문제로 234일간 파업사태가 발생했다. 또 2013년 에이스생명의 인력 감축을 지휘했고, 2014년에는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 사장 취임 후 인력의 20%를 줄였다. 금융감독원 통계

## 산업銀 수석부행장에 성주영

산업은행은 수석부행장과 집행부행장(부문장) 5명 등 총 6명의 임원을 신규 선임하고 부문장 업무분장을 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이사회 의결에 따른 조치다.

우선 성주영(사진) 기업금융부문장 겸 구조조정부문장을 수석부행장으로 신규 선임했다. 금호타이어 회장에 내정된 이대현 수석부행장은 임기 9개월을 남기고 자동으로 사임하게 됐다.



성 수석부행장은 기업 금융, 벤처투자, 국제 금융, 인수합병(M&A), 홍보 등 주요 업무를 두루 거쳤다.

산업 관계자는 “성 수석부행장은 타고난 기획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은행의 혁신적인 업무들을 발굴해 온 대표적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산은 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임원이 됐으면 하는 희망 인물’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7-04981호  
교보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74-191호(2018.11.14~2019.11.13)

KYOBO 교보증권

# 현명한 소비습관 슈퍼그레이트 WIN.K

교보증권 WIN.K 체크카드

**교육비 할인 서비스**

국내 전 학원업종 10% 청구 할인  
교보문고, 핫팩스, 영풍문고, 만디앤유, 미아학사 등 응시료 10% 청구 할인

**부가 상품 서비스**

스타벅스, 커피빈, 투썸플레이스 등  
CU, GS25, 세븐일레븐 등 10% 청구 할인  
SKT, KT, LGU+ 이동통신요금 10% 할인

**주유 할인 서비스**

SK주유소,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리터당 100원 할인

**CMA 금융서비스혜택**

RP에 자동투자해서 수익 제공  
주식거래까지 One Stop 서비스

**연회비 없이 누리는 신용카드급 혜택**

(전월 실적 기준 충족 시, 월 최대 4만 3천원 캐시백)

**위 혜택이 실화인지 지금 바로 신청해보기**

- 1 Win.K 설치 후 비대면계좌개설 시작
- 2 본인인증 Win.K 체크카드 신청
- 3 주소 등 정보입력
- 4 신분증 촬영
- 5 계좌인증
- 6 신청완료 카드배송시작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비대면을 통한 당사 최초 계좌개설 고객의 경우 MTS 매매 시 0.014%의 주식매매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체크카드 관련 상세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또는 소비자지원센터(1544-09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노선·항공기 늘려라”...항공업계, 올해 무한경쟁 돌입

올해 국내 항공업계 경쟁은 한층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형항공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이 각자의 전략을 바탕으로 역량 강화에 나서는 가운데, 신규 LCC 도입도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국제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5월부터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를 시행하며 미주 및 아시아 노선에서 공동 운항을 확대하는 등 협력 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4월 보스턴 신규 취항 예정”이라며 “협력을 통해 미국 국내선에 대한 대한항공의 영향력이 확대된다고 볼 수

대한항공, 델타와 협력 수익 증대 아시아나, 유럽노선 등 신규 취항

LCC ‘몸집 키워’ 새 항공기 도입 신규 면허 심사...경쟁 심화 예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조인트벤처를 통한 대한항공의 수익이 올해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장거리 노선 강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해 이탈리아 베네치아, 스페인 바르셀로나 노선을 신규 취항하며 장거리 네트워크 강화에 힘써왔다. 일각에서는 2019년 하반기 개항을 앞둔 중국 베이징 2공항이 아시아나항공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회사는 2017년 기준 국내 항공사 중 중국 노선 매출 비중(15.6%)이 가장 높다.

국내 LCC업계 1위인 제주항공은 ‘몸집 불리기’ 작업에 한창이다. 제주항공은 지난달 31일 B737-800 항공기를 추가 도입해 계획한 8대의 항공기 도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제주항공이 운영하는

항공기는 구매기 3대와 리스기 36대 포함해 39대로 늘어났다. 제주항공은 기단 확대를 신규 노선과 기존 노선 운항 횟수를 늘려 시장점유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신규 LCC 면허심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에어필립 등 4개사가 신규 국제 운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한 상태.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안에 심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형 항공사의 경우 실적 개선보다 ‘내부 리스’가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항공의 경우 최근 이명희

(70)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45)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민(36) 대한항공 전 전무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송치됐다. 지난달에는 기내 지도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유동성’ 이슈가 계속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달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소유의 금호고속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 주식 등을 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이 사실상 ‘최후의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 가온전선 자회사 편입 지주사 체제 강화...E1 등 10여 개사 남아

### 재계 지배구조 진단

#### ⑥ LS그룹

LS그룹이 지주사 체제를 강화하고,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정리하는 등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온전선을 LS전선 자회사로 편입했고, 특수관계인의 가온전선 지분도 전량 처분했다. 그룹 내 도시가스 사업을 영위하는 예스코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LS전선은 지난해 1월 총수 일가가 보유하고 있던 가온전선 지분 37.62% 중 31.59% (131만4336주)를 303억 원에 매입해 가온전선 대주주가 됐다. 이어 8월에는 구자열 LS 회장의 여동생 등 특수관계인 8명이 가온전선 지분(6.03%, 25만673주)을 전량 LS전선에 매각했다. 기존 최대주주인 LS전선의 가온전선 지분율은 31.59%에서 37.62%로 늘었다.

이로써 가온전선을 둘러싼 일감 몰아주기 및 지배구조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LS그룹은 지주사 체제지만, 가온전선을 지주사 체제에 편입시키지 않고 구 회장 등 총수 일가와 특수관계인들이 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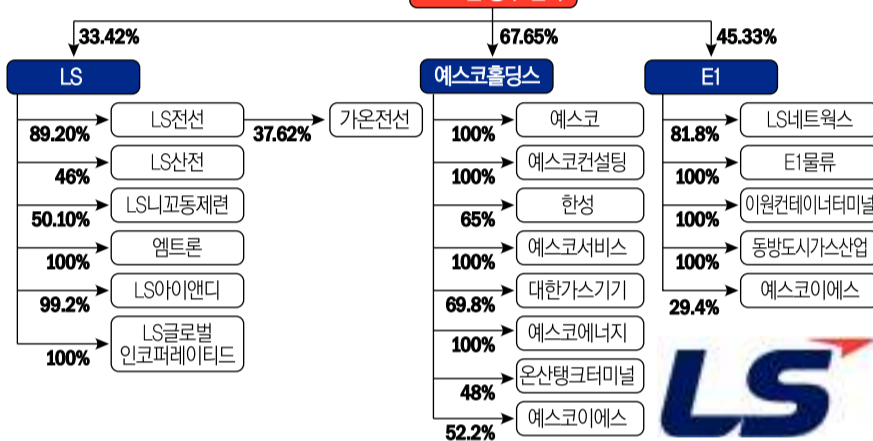
LS·예스코홀딩스 양대 지주 체제 계열사 비주력 사업조정 마무리 구자은, 차기 그룹 회장 가능성

37%를 들고 직접 지배해 왔다. 중저압 케이블과 통신 케이블을 생산하는 가온전선은 LS전선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일감을 받기도 해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LS전선이 가온전선을 자회사로 편입시키면서 지주회사 편입률이 높아지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피할 수 있게 됐다. LS전선의 가온전선 지분 매입으로 LS-LS전선-가온전선의 단순 지배구조는 더욱 강화됐다.

LS그룹에서 도시가스 사업을 담당하던 예스코도 지난해 3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같은해 4월 1일 예스코홀딩스, 예스코로 재편됐다. 존속법인이자 지주사인 예스코홀딩스 아래 도시가스 부문을 물적분할하고 예스코를 자회사로 두는 구조다.

LS그룹 관계자는 “LS는 가온전선을 지주회사 체제로 편입시키고 예스코를 지주

LS 지배구조 (2018년 반기 보고서 기준)



회사로 전환시키는 등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라는 시장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계열사 사업조정도 마무리에 들어갔다. 2017년 7월 LS엠트론은 배터리 소재로 사용되는 동박사업과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자회사LS오토모티브의 지분을 매각했다. 이어 같은해 8월 말에는 LS니꼬동제련이 해외 자원개발 회사 지분을 약 7100억 원에 캐나다 기업에 매각했다.

또한, LS전선이 중국 자회사 LSCW(LS케이블&시스템 우시) 지분 47%를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에 매각했으며, LS전선의 하네스&모듈 사업을 물적 분할해 LS EV KOREA를 신설한 이후 47% 지분도 매각했다.

LS그룹에서 지주회사 체제에 편입되지 않은 계열사는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업체인 E1과 LS네트웍스 등 10여 곳이다. 전선을 중심으로 한 주력 사업 관련 기업은 가온전선을 마지막으로 모두 지주회사에 편입됐다. 2008년 LS전선을 분할해 지주회사 LS를 출범시킨 LS그룹은 지난 10년

간 지주회사 전환에 힘을 쏟아왔다. 2011년에는 오너들이 소유하고 있던 파운텍 지분을 LS전선에, LS글로벌 지분은 LS에 매각해 지주회사 편입률을 높이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구자은 LS엠트론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하면서 LS그룹은 경영에서의 변화도 앞두고 있다. 구 회장은 현재 그룹을 이끄는 LS그룹 총수일가 2세 7명 가운데 유일하게 부회장이었으나, 이번 승진으로 LS그룹 총수일가 2세 7명 모두가 회장직을 맡게 됐다.

구자은 회장의 이번 승진은 사실상 예고된 것이었다. LS그룹이 잡음 없이 사촌형제 경영을 해온 만큼 향후 구자은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하고 구자열 회장에 이어 차기 그룹 회장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재계의 중론이었다. 과거에도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이 10년간 LS그룹을 이끌다 2013년부터는 구자열 회장이 그룹을 맡아 오고 있다.

특히, 구자은 회장은 최근 그룹사를 지배하는 LS 지분을 꾸준히 모으기도 했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지분을 매수, 구 회장의 지분율은 3.98%로 늘었다. 권태성 기자 tskwon@

www.douzone.com

# 올 A+ 회계프로그램

## 더존 Smart A Cloud Edition

(클라우드 서비스형)

Anytime 언제나  
Anywhere 어디서나  
Any Device 어떤 기기든  
Anybody 누구나 쉽게 쓰고  
Automatic 자동으로 처리되는

더존 Smart A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사용하시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실시간 업무처리와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며, 수입 고객사 중요 거래 자료를 자동 수집, 분개 입력하여 가장 시간이 좋고 세무회계사무소의 전산권리와 보안 이슈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세무사님들께서 Smart A Cloud Edition에 만족하고 계십니다."

**Smart A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무엇입니까?**

- 47% / 데이터 유출 방지
- 21% / 완전자동회계처리(슈퍼복)
- 19% / 편의성(스마트워크)
- 13% / IT관리비용 절감

<b>데이터 유출 방지</b>	국가공인 전자문서센터가 운영하는 더존 클라우드센터에 Smart A 데이터 보관
<b>완전자동회계처리(슈퍼복)</b>	매일 자동으로 거래내역 수집, 빅데이터 분석기술로 회계처리의 정확도 대폭 향상
<b>편의성(스마트워크)</b>	언제, 어디서나, 사무실 밖에서도 PC와 모바일 기기로 Smart A 사용, 조회 가능
<b>IT관리비용 절감</b>	더존 클라우드센터의 IT 인프라를 빌려 쓰는 방식이라 각종 전산자원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DOUZONE**

**강력한 데이터 보안**

- 365일 24시간 보안관리 서비스로 바이러스는 물론, 해킹과 데이터 유출까지 차단
- Smart A에 입력된 데이터는 클라우드센터에 3중 백업 보관
-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가 클라우드센터에 보관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효력 발생

**완전자동회계처리(슈퍼복)**

- 수입처의 거래내역을 매일 자동으로 수집, 분개 처리하고 회계전표로 생성
- 회계표준 빅데이터를 함께 분석하여 회계처리의 정확도 대폭 상승
- 자료 수집, 입력 등 잔무 스트레스 해소, 기장 및 세무신고 시간 단축

**스마트워크 환경 구현**

- 언제, 어디서나 PC와 모바일 기기로 Smart A 사용, 조회 가능
- 수입처 방문 시 PC와 모바일 기기로 실시간 데이터 조회 및 상담 가능
- 주요 신고기간의 아근 및 휴산, 육아 고민 등 직면 복지 문제까지 해결

**탁월한 비용절감**

- 클라우드센터의 IT 인프라를 빌려 쓰는 방식이라, 각종 전산자원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 사용자 PC가 노후화 되어도 빠른 속도로 업무처리 가능
- MS Office 라이선스 무상제공 / Smart A 전용 메인저 무상 제공

문의 1688-5000

www.kepco.co.kr

# 세계 최고를 넘어, 新에너지 세상으로 -



섬은  
떨어져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햇살이, 바다가, 바람이  
내일의 빛을 만들어줍니다.

자연에서 전기를 만들고  
마법처럼 담아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전력이 꿈꾸는  
깨끗한 에너지 세상입니다.



## 세계 1위 전력회사를 넘어 깨끗한 에너지 생태계를 선도하는

Beyond the Top, Leading KEPCO-

# ‘중소 강국’ 獨·日 벤치마킹... 관계형 금융지원 등 확대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현 금융감독원장, 두 명의 금융당국 수장이 지난해 추천한 책이 있다. 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가 쓴 ‘메이커스 앤드 테이커스’다. 저자는 이 책에서 금융회사를 ‘거저먹는 자들(takers)’라고 비판한다. 실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 없이 자기 배만 불린다는 것이다. ‘만드는 자들(makers)’은 기업 등 생산자를 의미한다. 그는 거저먹는 자들이 만드는 자들을 압도하고 있다고 말한다. 투자 등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금융 본래 기능은 약화하고, 어떻게든 돈을 굴려 자신의 수익을 창출하고 빈부 격차를 심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윤 원장은 한 언론에 이 책을 추천하며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지금, 금융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2017년 기준 국내은행의 총자산은 2363조 원이다. 같은 해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 등 총자산 기준 10대 기업을 합쳐도 1000조 원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시중은행들은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안정성 높은 가계대출에 치중해왔다. 금감원 은행경영통계에 따르면 1995년 당시 55.9%에 이르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지난해 43.6%로 줄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임대사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이 늘어나 증가 추세로 바뀌었

다. 안전한 보증이 있어야만 대출을 내주는 것”이라고 했다.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이 발급한 보증서를 기반으로 내주는 대출이 12.9%다. 10곳 중 7곳은 담보가 충분하거나 보증을 선 공공기관이 대출을 대신 갚아줄 때만 돈을 빌려준다는 의미다.

2008년 46.9%에 달했던 중소기업 신용대출 규모는 31.6%로 쪼그라들었다. 사업을 오래 하고 매출이 큰 우량 기업이 전체 신용대출의 71.7%에 달한다. 최근 시중은

중소대출 12% 감소·대손 위험 낮은 가계대출은 26% 늘어  
10건 중 7건 담보 대출... 생산수단보다 안전자산 ‘땅’ 우대

‘無담보’ 스타트업, 기술력 있어도 자금 조달 ‘하늘의 별따기’  
중소·벤처 잠재력 평가 등 은행권 내부 지원 모델 구축해야

다. 가계대출은 같은 기간 17.5%에서 43.2%로 증가했다. 2008년부터 가계대출 증가율은 연평균 6.2%로 기업대출 증가율(5.4%)을 훌쩍 넘는다.

은행들이 가계대출에 집중하는 이유는 한 가지다. ‘돈’을 벌기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우선 가계대출은 리스크 관리가 쉽고 페널티 우려가 적다. 가계대출의 이자 수익률(대출금을 이자수익으로 나눈 값)에서 대손률(대출금을 대손비용으로 나눈 값)을 뺀 값이 기업대출보다 높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할 때도 위험 가중치가 낮은 가계대출이 유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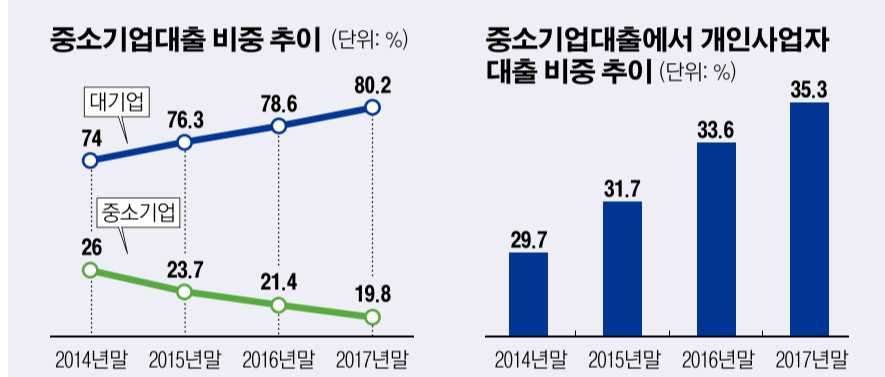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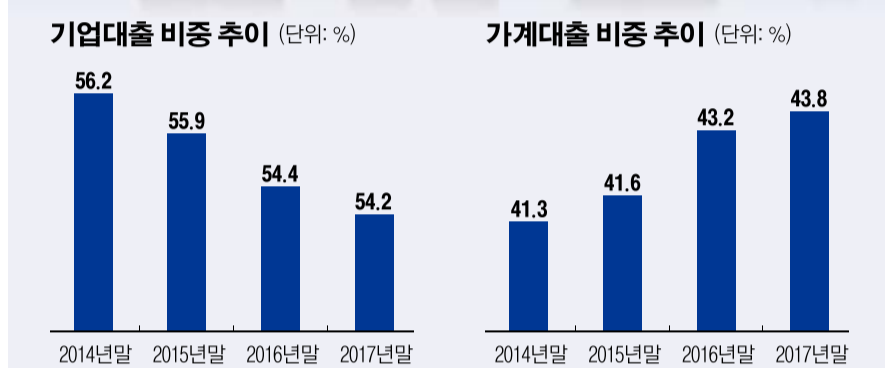
◇담보·보증 대출이 10곳 중 7곳 = 국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그마저도 ‘담보’나 ‘보증’ 대출 위주다. 2017년 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에서 담보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8.1%에 이른다. 2010년(42.9%) 이후 꾸준히 높아졌다. 최근에는 공장 등 생산수단이 아닌 ‘땅’을 우대한다고 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에는 담보도 공장이 아닌 땅을 보고 있다”며 “완전

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고 있으나 ‘출혈 경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전체적인 중소기업 시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량 기업을 고객으로 삼기 위한 뺏고 뺏기는 경쟁을 하는 것이다.

기술이 있더라도 담보가 없는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 대출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이디어만으로 2015년 창업해 60억 원 이상 투자를 받은 한 벤처기업 관계자는 “대부분 벤처캐피털(VC)에서 돈을 조달하고 있다”고 했다. VC는 일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벤처기업에 무담보 주식투자 형태로 투자하는 자본이나 기업을 의미한다.

물론 은행들도 할 말은 있다. 한 시중은행의 기업금융 담당 부행장은 “개별기업의 신용등급을 다 봐서 호의적으로 잘 해주고 싶다”면서도 “(경기가 어려울수록) 리스크 관리를 잘하고 한 번 더 심사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정부가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말하지만, 위기 발생 시 강한 리스크 관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시중은행의 여신관리 담당 부행장



	2011년말	2012년말	2013년말	2014년말	2015년말	2016년말	2017년말
담보	45.9	48.8	50.3	52.1	53.9	55.7	58.1
- 부동산	90	90.8	91.4	92	92.7	93.5	93.8
보증	12.7	12.9	13.2	13	12.7	12.7	12.9
신용	41.4	38.3	36.5	34.9	33.3	31.6	29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출처: 금융감독원

은 “은행이 대출을 중단하고 만기를 연장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진짜 리스크가 커지고 어렵다면 회사와 협의해 대출을 분할 상환하게 하거나 상환금액을 조정하는 등 여러

방법을 고민한다”고 했다. <객관적인 평가모델 개발 필요... ‘관계형 금융’도 고민해야 = 그럼에도 담보가 없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력과 잠재력을 따져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다만 선부른 접근은 위험하다. 박근혜 정부가 2014년 도입했던 ‘기술금융’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 160조 원을 돌파했다.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매년 두 차례 순위를 발표하면서 은행 간 경쟁에 불을 붙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부 은행이 기존 중소기업 거래 기업을 기술금융에 편입시키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지식재산 금융’, ‘일괄 담보제’ 등 기술금융을 대체·보완하는 용어들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모두 기존 담보 중심 대출에서 신용 중심으로 바꾸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지나친 양적 성장 위주의 속도전으로는 기술금융과 같은 ‘속 빈 강정’이 될 우려가 크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금융의 경우 시장이 활성화하려면 이를 사고팔 시장이 있어야 한다”며 “인프라가 부족하데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은행마다 독자적인 내부 평가 모델을 갖추기 위한 투자와 인력 확충 등이 필요하다.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관계형 금융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 강국인 독일의 경우 은행이 자금 중개 기능이라는 전통적인 역할에 충실하다. 지역에 있는 영세 기업들은 지역금융회사를 주거래 은행으로 삼아 자금을 융통한다. 아이디어와 기술력만 있으면 주거래은행은 기업을 믿고 수년간 돈을 빌려준다. 우리나라도 관계형 금융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과 은행이 업무협약(MOU)을 맺는 방식으로 이를 도입했다. 은행은 MOU를 맺은 기업에 3년 이상 만기로 돈을 빌려준다. 대신 기업 정보를 받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다. 10월 말 기준으로 7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5조9000억 원)보다 1조5000억 원 가까이 늘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동안 국내 은행은 몸을 사려왔다. 그동안 가계대출을 늘려 예대마진으로 돈을 벌어 리스크도 적고 얻을 게 많았다. 다른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나라가 금방 위기를 극복한 이유다. 그런데 과연 앞으로도 과연 리스크 관리만 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다.” 금융당국 관계자의 말이다. 금융회사로서 ‘건전성 관리’는 최우선 목표이지만, 단순히 ‘보신주의’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경고다.

이세하 기자 shys0536@  
김보름 기자 fullmoon@  
곽진산 기자 jinsan@

## ‘비 올 때 우산 뺏기’ 이제 그만

은행, 재무·담보 가치 하락 땀 자금 회수 나서  
금감원 “무조건 빼앗기보다는 협의점 찾아야”

경북 중소제조업체 A사는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상담센터 문을 두드렸다. 이 회사는 한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과 신용보증대출(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 보증을 담보로 빌리는 대출)을 사용하고 있었다. 최근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을 우선 갚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신용대출을 먼저 갚아야 보증부 대출 상환을 연장해준다고 것이다. 금감원은 “은행에 다시 한 번 상황을 설명하고 협의해봐라”고 조언할 수밖에 없었다.

많은 중소·벤처 기업은 재무상태가 나빠지거나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금융회사가 대출을 회수하는 ‘비 올 때 우산 뺏기’ 식 영업을 한다고 이야기한다. 경기제조업체 B사도 최근 이어지는 대출 상환 압박이 걱정이다. B사는 2014년 신보 보증으로 일시상환대출(전체 대출금의 80% 보증)을 받았다. 그러나 2017년부터 매출이 부진하자 은행이 조기 상환에 나섰고 현재 B사는 빚을 나누며 갚고 있다. 20%인 신용대출은 신용도 하락으로 금리가 올랐다고 한다.

특히 자동차·조선 부품업체는 최근 경기 약화와 실적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은행들은 이미 일부 업종을 엄격하

출 심사 필요 ‘관리업종’으로 지정해 돈줄 조이기에 나섰다. 인천 중소철강제조업체 C사도 은행들이 최근 담보를 간간하게 보고 금리가 올랐다고 하소연했다. C사 대표는 “정주영 회장이 영국 버클리은행에 가서 ‘거북선을 만들던 나라’라며 거북선을 보여주고 담보 없이 대출을 받았다”며 “우리나라 시중은행은 기술력을 보려고 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자금 사정이 나은 중견업체도 상황은 엇비슷하다. 고성에 있는 조선업 중견기업인 D사는 최근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해양플랜트와 조선설비 등

사업을 다양화하며 잇따라 수주에 성공한 덕분이다. 그런데도 선수환급보증(RG)을 발급받는 데 애를 먹었다. 그동안 거래해온 주거래은행이 ‘지금까지 많이 도와줬는데 더 도와달라고 하느냐’며 돈을 거두어들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D사 대표는 “우리 제2의 도약기를 맞아 자금을 더 많이 써야 하는데 상환하라고 한다”며 “만기를 그냥 연장해주지 않고 일부 금액을 갚으면서 단기로 연장해주고 있다”고 했다.

그는 “조선업 1위인 중국은 계약만 해오면 RG뿐만 아니라 대출을 한도 없이 내준다고 한다”며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

기술력이나 회사 비전 등 수치화할 수 없는 부분까지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부터 3년간 기업 설비투자 및 사업재편 등에 15조 원을 투입한다. 자동차 부품업체에는 1조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 등 약 3조50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시중은행 등 민간 영역에서 금융회사의 역할도 필요한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가 어려울 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신규 대출을 추가로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기존 대출의 경우 회사가 어려울 때 무조건 빼앗기보단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세하 기자 shys0536@  
김보름 기자 fullmoon@  
곽진산 기자 jinsan@



정체기에 빠진 스마트폰 시장의 구원 투수로 폴더블폰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삼성개발자콘퍼런스'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송영록 기자 syr@

# 접는 스마트폰 시대 '디스플레이 코리아' 날개 편다

글 쓰는 순서

- ① 막 오른 폴더블폰 레이스
- ② AI 플랫폼 동맹
- ③ 美·中 사이에 낀 韓 로봡
- ④ 갈 길 먼 자율주행 상용화

전화기와 인터넷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를 거치는 동안 인류 최고 발명품 중 하나다.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는 하나로 연결됐다. 2007년 등장한 스마트폰은 인터넷을 손안으로 가져오게 했다.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는 휴대폰에 인터넷이 결합하면서 인류의 삶을 바꿨다. 그런 스마트폰도 최근 정체기에 접어들었다. 눈에 보이는 혁신이 어려워진 탓이다. 올해 등장할 폴더블폰은 다시 한번 혁신을 일으킬 제품이다.

삼성전자, 3월 말 출시 가능성  
기술 선도·제품 표준 정립 의의  
LG·화웨이·레노버도 거센 추격

◇ 삼성전자 필두로 폴더블폰 출시 경쟁 =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삼성개발자회의(SDC 2018)에서 삼성전자가 폴더블폰의 윤곽을 처음 공개하자, 업계에선 환호와 우려의 시선을 함께 보냈다. 스마트폰이 탄생한 후 이처럼 대대적인 폼팩터 변화는 없었다는 점에서 일단 환호하는 시각이 많다. 최근 정체기에 빠진 스마트폰 시장을 살릴 '구원투수'로 평가하기도 한다.

먼저 업계는 삼성전자가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9'를 전후로 폴더블폰을 공개하고 3월 말 출시할 가능성이 높게 본다. 고동진 IM부문장(사장)은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기 제품 수량은 100만 대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제품은 안으로 접히는 인폴딩 방식이며 화면 크기는 펼쳤을 때 7.3인치, 접었을 때는 4.6인치다.

접었을 때 바깥면에 작은 디스플레이가 따로 달렸다. 기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보다는 다소 작지만, 메인 디스플레이에서 가능한 앱의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가령 접었을 때는 전화, 메시지 등을 간단히 쓰고, 펼쳤을 때 태블릿처럼 게임이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2013'에서 에릭 리더 MS 최고기술전략경영자가 MS 운영체제를 장착한 삼성의 구부러지는(벤더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다. 라스베이거스/UPI연합뉴스



LG디스플레이는 2015년 국제 정보디스플레이 학회 전시회에서 돌돌 말리는 18인치 롤러블 OLED 디스플레이를 선보였다. 사진제공 LG디스플레이



지난해 '삼성개발자콘퍼런스'에서 공개된 폴더블폰 시제품. 샌프란시스코/AP연합뉴스

폴더블폰은 출시 초기에는 배터리 효율성, 다양한 콘텐츠 부족으로 큰 반응을 끌어내기는 어렵겠지만 일부 교체 수요를 이끌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중국업체 간 점유율 차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먼저 폴더블폰을 내놓는다면 앞선 기술력을 확인하고 제품 표준을 먼저 정립한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비싼 가격은 확산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외신 등은 삼성전자 폴더블폰이 200만 원에 육박해 대중에게 어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중국 화웨이, 레노버, LG전자 등도 올해 폴더블폰을 출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보다 먼저 폴더블폰을 내놓겠다고 자신했던 화웨이는 올해 중순 5G를 지원하는 폴더블폰을 내놓겠다고 전략을 선화했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폴더블폰 출하량은 올해 300만 대, 2020년 1400만 대, 2022년 5000만 대로 예상된다.

◇ 디스플레이 기술력 韓 업체가 앞서 = 과거 피쳐폰 시절 노키아에 밀려 2위였던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시대에 돌입하면서 노키아-애플 등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하지

만 화웨이 등 중국 업체가 점유율에서 턱밑까지 추격하면서, 최근 1위의 입지가 매우 좁아진 게 사실이다. 폴더블폰을 기회로 다시 초격차 1위에 오를지, 중국의 추격을 허용할지 업계 관심이 높아진 이유다. 스마트폰 사업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LG전자 역시 폴더블폰이 부활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중국 업체와 국내 업체의 출시 일정은 비슷하지만, 결국 우리나라 업체가 폴더블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사실상 접는 스마트폰을 구현하기 위한 플렉시블 OLED 패널 부문에서 우리나라 업체의 디스플레이 기술력이 중국에 앞서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로얄(Royole)'이 올해 '세계 최초 폴더블폰'을 주장하며 제품을 내놓았지만,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조악한 수준인 데다 대량 양산은 어렵다는 점 때문에 의미가 크지 않다.

플렉시블 패널선 韓 절대강자  
삼성디스플레이 점유율 94%  
LG도 OLED 분야 경쟁우위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스마트폰용 플렉시블 OLED 매출은 46억1400만 달러(5조2345억 원)로, 전 분기의 2배 이상이 됐고 전년 같은 기간보다도 57.9% 늘었다. 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년 전보다 15.8%포인트 오른 42.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삼성디스플레이는 무려 94.2%의 점유율로 '사실상 독점' 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했다.

LG디스플레이는 현재 OLED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이 분야 투자에 올인하고 있다. 이미 대형 OLED 분야에서는 경쟁사를 압도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중소형 투자도 늘리고 있다. 6세대 플렉시블 OLED 공장 E5에 월 1만5000장, E6에 월 3만 장 규모 생산 능력을 각각 갖췄다.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사들도 이 분야 투자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향후 국내 업체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에서 어느 정도 경쟁사를 압도할 수 있을지 관건이다.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는 특정 영역을 휘거나 접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로, 휘는 정도에 따라 커브드(휘는), 벤더블(구부러지는), 롤러블(말리는), 폴더블(접히는) 등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해 신축성이 있어 3차원 형태의 변형까지 가능한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도 주목받는다.

송영록 기자 syr@

## 삼성, 스마트폰 패러다임 바꿀 UX 혁신 준비

폴더블폰이 성공하기 위해선 가격 등 다양한 걸림돌이 있다. 전문가들은 폴더블폰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사용자 경험(UX)을 꼽는다. 폴더블폰이 단순히 디스플레이 기술의 진화에 그치지 않고, 충분한 사용자 경험(UX)과 효율을 제공해 신규 고객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사용자 경험(UX)이 폴더블폰 상용화의 관건"이라며 "소비자들이 폴더블폰으로 갈아탈 수밖에 없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선제적 개발 등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양산 준비를 마치고 출시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것도 폴더블폰의 사용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부터 구글과 TF를 구성했다.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 성공하려면 서비스와 콘텐츠가 최적화돼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삼성이 하드웨어를 먼저 내놓고 이후에 소프트웨어를 애기했다면, 이번에는 제품 출시에 앞서 폴더블폰 에코 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신제품을 MWC나 CES, 언팩 행사를 통해 발표하던 것과 달리 이번엔 개발자들에게 먼저 공개했다. 삼성전자 폴더블폰은 펼치면 7.3인치에 4대3 비율의 화면이다. 다양한 앱이 4대3 화면에 적합하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에게 SDK를 공개, 관련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장(사장)은 "폴더블폰 출시에 앞서 개발자들이 초기부터 폴더블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기존 태블릿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 성불평등 눈감은 사회, 성장둔화 ‘불편한 진실’

1999년 등장한 위미노믹스(Womenomics)가 20년 만에 진정한 의미를 되찾고 있다. 2000년대 초 중반 경기를 부양하려는 각국 정부가 위미노믹스를 통해 달라진 여성 소비자의 위상을 치하하거나 '유리천장'을 깨 곡소수의 여성 고위직을 전면에 내세우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진짜로 '여성의 자리를 내놓으라'는 것이다.

지난해 미투 운동을 촉발한 미국 할리우드에서는 최근 들어 타임스 업(Time's up)시간이 됐다'을 외치고 있다. 남성 독점 시대를 끝내고 경제·사회 영역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는 비단 여성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미래 생산동력을 잃은 국가들은 더 물러설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미노믹스로 회귀하고 있다. 저성장, 규제 강화, 미국 영향력 감소 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나타난 경제 흐름을 일컫는 이른바 '뉴 노멀'에 위미노믹스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저출산·고령화 더 무릎 수 없는 상황... 위미노믹스 '질실' = 지난해 6월 세계은행은 전 세계 141개국을 조사한 '성불평등의 비용(The cost of gender inequality)' 보고서를 내고 여성 차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전 세계적으로 160조2000억 달러(1경 8385조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여성의 경제 참여가 확대되고 성평등한 문화가 조성될 경우 개인당 2만3620달러의 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은행의 쿠엔틴 워드 이코노미스트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임금을 받고, 동일한 시간만큼 일한다면 전 세계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 계산했다"며 "성 불평등으로 각 국가는 평균적으로 부의 14%를 잃고 있었다"고 말했다.

위미노믹스는 골드만삭스의 캐시 마스씨가 여성(woman)과 경제(economics)를 합쳐 만든 단어다. 그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의 해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에 있다고 믿었다. 이번 보고서를 비롯해 세계은행은 2001년부터 '젠더 메인스트리밍 전략' 보고서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여성을 노

여성의 임금차별·가사·육아 부담 '역풍' 20년간 글로벌 생산인구 감소세 뚜렷 세계은행, 141국 성불평등 비용 조사 "개인당 2만3620달러폴로 경제 손실"

동시장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와 구호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여성들은 인생의 과정에서 출산을 지워버렸다. 세계의 생산(노동)가능인구 성장세는 지속적으로 둔화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일본은 1996년, 중국은 2012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한국도 지난해 생산가능인구 그래프가 꺾였다. 경제 현장에 나선 여성은 많아졌는지 몰라도 아이를 더 낳고 더 나은 임금 수준이나 노동 시간, 가사·육아 부담 시스템을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표한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총인구는 76억 330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8300만 명(1.1%) 늘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인구성장률도 1.2%에 불과하다. 여성 1명당 평균 2.5명을 출산했다. 특히 한국은 1.3명으로 포르투갈, 몰도바에 이어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국가다. 유엔인구기금은 이를 여성의 '재생산권(생식권)'이 사회·경제적인 불편으로 인해 보편적인 권리로서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다시 위미노믹스 찾는 국가들 = 노동인구의 부재는 단순히 '벌 수 있는 돈(160조2000억 달러)을 못 번' 아쉬운 상황을 넘어섰다. 일찍부터 인구문제도 고심해온 일본에서는 2013년 재집권에 성공한 아베 신조 총리가 다시 위미노믹스를 주요 정책으로 꺼내 들었다. 2013년 당시 49%에 불과한 25~4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2020년엔 73%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다. 기존 목표치였던 68%에서 5%포인트 더 상향한 것이지만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2017년 기준 85.6%)과 비교하면 여전히 10%포인트 이상 차이는 수준이다. 성장기업 임원 30%를 여성으로 채우겠다는 방안도 내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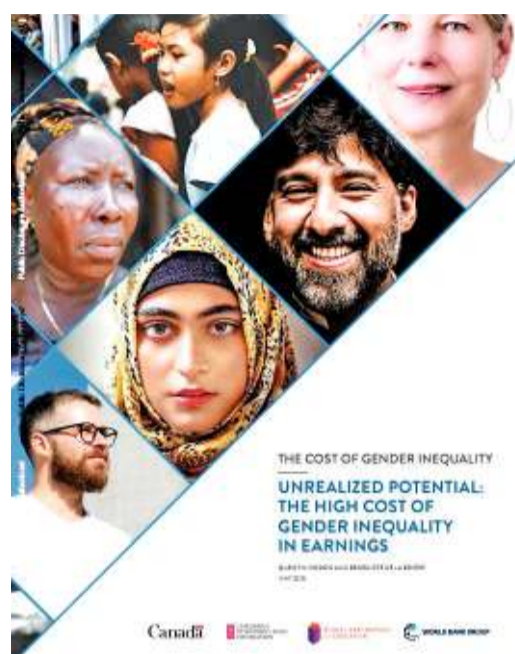
다소 급진적인 목표치로 보일 수 있지만, 점점 극심해지는 일본의 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여성을 일터로 나오게 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일본 후생성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15~64세)는 1995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현재 1억 명이 넘는 일본 인구는 2060년엔 8700만 명까지 줄어든다. 그중 40%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다. 11월 29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의 경기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일본 국내총생산(GDP)이 향후 40년간 25%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 감소가 고민인 선진국뿐 아니라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토대로 성장 중인 개발도상국에서도 여성의 경제활동을 확대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인도 인구는 13억5410만 명으로 중국(14억1500만 명)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대에 머물고 있다. 중국은 60%가 넘는다. 미국과 유럽, 한국 등은 대부분 50% 초반 수준이다.

특히 유엔인구기금은 인도와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이란, 우즈베키스탄 등을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한 국가'라고 진단한 상태다. 이들 개발도상국은 당장은 인구 문제로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지만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 중이며 가까운 미래에 노동인구가 줄고 연금과 보건 서비스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나 아가라랄, 나타 무부리 등 인도의 여성주의 경제학자들은 힌두교 국가에서 더욱 억압된 여성의 권리와 경제활동 상황을 개선해야만 인도 경제가 도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은 힌두교나 일부 이슬람 국가,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인도에서는 2005년에서야 여성이 재산을 상속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정다운 기자 gamja@



세계은행이 발표한 '성불평등 비용 2018 보고서'.

유엔인구기금(UNFPA)의 2018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

	한국	선진국	자기개발도	개발도상국	세계
2018년 총인구 (백만 명)	51.2	1,236	6,370	1,026	7,633
2010~2018년 연평균 인구 성장률(%)	0.4	0.3	1.3	2.4	1.2
0~14세 인구비율(%)	13	16	28	39	26
10~24세 인구비율(%)	17	17	25	32	24
2018년* 15~64세 인구비율(%)	72	65	65	57	65
65세이상 인구비율(%)	14	19	7	4	9
2018년* 2015~2020년* 연평균 출산율(세)	1.3	1.7	2.6	4	2.5
2015~2020년* 평균 출산율(세)	32.3	30	27.7	28.5	27.9

\* 출처: 유엔인구기금(UNFPA), 인구보건복지협회  
\*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0~24세 인구 비중이 극히 적어 향후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가 심각

# “난 빅데이터 전문가... 숫자엔 성별이 없잖아요”



전경혜 CVM 추진담당 상무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고객맞춤제안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크기가 크고 내용과 형태가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활동.”

“빅데이터 전문가” 전경혜 LG유플러스 CVM(고객가치관리)추진담당 상무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빅데이터 활동을 이렇게 정의했다.

LG그룹은 지난해 말 정기 임원 인사에서 전경혜 상무 등 신입 여성 임원 7명을 선발했다. LG그룹 내 여성 임원은 총 29명으로 이번 승진자가 전체 4분의 1에 해당한다. 하지만 LG그룹 신규 임원 승진자 수가 185명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큰 규모가 아니다. 아직 여성 임원의 수는 남성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다.

“유리천장”을 깨 전경혜 상무는 스스로를 ‘여성’이라기보다 ‘전문가’임을 강조했다. 전경혜 상무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제안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 상무는 “고객 니즈를 파악하고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제안을 선제적으로 내놓기 위해 빅데이터를 분석했다”며 “고객 시선에서 고객이 놓친 혜택을 찾고 고객에게 딱 맞는 상품을 발굴해 제안하는 ‘고객맞춤 제안’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고 회상했다. 모바일, 홈미디어 등 고객이 가입한 LG유플러스 상품의 사용 패턴과 요금제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고객에게 최적의 상품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빅데이터는 기존 데이터보다 규모가 방대하고 유형이 다양하며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데이터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컴퓨팅, 5세대 통신(5G)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꼽힌다. 빅데이터 기술의 집합체인 빅데이터 플랫폼을 사용해 빅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 관리할 수 있다. 구글 자동번역 시스템, IBM의 슈퍼컴퓨터 ‘왓슨’, 아마존의 도서 추천 시스템 등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기업은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고, 공공 부문에서도 위험관리시스템, 공공데이터 공개 정책 등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역시 정보기술(IT) 선두주자로서 마

1997년 입사, 빅데이터팀 책임자 발탁 맞춤 상품 발굴·고객 만족도 높은 공로 LG, 여성임원 승진자 7명중 한 명으로 신산업 불모지 개척...유리천장 깬 비결

케팅, 고객 관리 등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전경혜 상무는 “기업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목적은 ‘고객 분석’이다. 소비자의 보편적 트렌드가 아니라 ‘나의 고객’을 분석하고 고객이 가까이 지拂하도록 하는, ‘맞춤 고객’으로 만드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업계에서는 서비스 차별화, 투자비용 효율화 등을 이뤄 결국 마케팅을 강화하고 고객을 관리하는 데 빅데이터를 활용한다”고 말했다.

전경혜 상무는 1997년 LG텔레콤(현 LG유플러스) 입사 후 분석기반 업무를 두루 거쳤다. 2016년 빅데이터추진팀이 신설된 후 책임자로서 본격적인 빅데이터 전문가로 거듭났다. 전경혜 상무는 빅데이터 입문 계기에 대해 “네트워크, IT, 서비스 관련 부서를 거치면서 통신데이터, 고객 정보, 서비스 정보 등 전사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며 “플랫폼 전략,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전사 빅데이터 전략 수립을 위해 선임돼 본격적으로 빅데이터 활동을 시작했다”고 떠올랐다.

난관도 있었다. 전 상무는 “CVM은 고객 만족과 회사의 성과,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활동이다. 고객 분석, 파일럿 활동과 개선 등을 반복하며 최적의 수준을 맞춰 가야 하는데 매우 어려운 과정”이라며 어려움 순간에 늘 부딪혔다고 털어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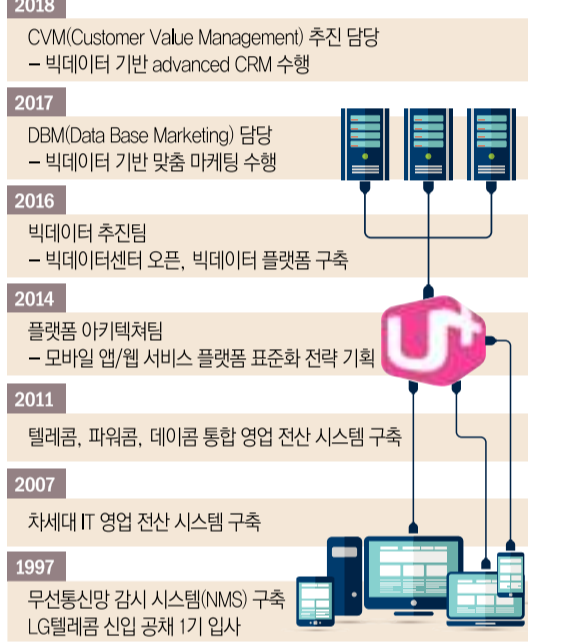
신기술인 빅데이터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정보를 이용한 감시 사회 ‘빅브라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정보 격차, 보안 등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전경혜 상무는 “최근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해 여러 이슈가 있었고 부정적인 시각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여러 장치를 통해 빅데이

터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LG유플러스의 경우 철저하게 고객 동의하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며 고객 통신사비도 경영 향상을 위해서만 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혜 상무는 한국의 빅데이터 기술발전을 위한 조건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미국, 유럽, 중국 등 글로벌 통신사를 벤치마킹했다”며 “빅데이터의 가치는 데이터 규모와 다양성, 이를 분석·활용하는 분석가의 역량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다. 한국의 데이터와 분석가 확보 측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경형 향상을 위해서만 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희 기자 jh6945@

전경혜 상무 이력



# 여성 때문에 역차별당한다고? ... 착시현상에 가려진 ‘유리천장’

女 경제활동, 男보다 13.5%P 적어

“극소수 고위 여성이 잘되고 있으니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비쳐진다.”

올해 한국에서 미투(me too)와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인 ‘백래시(Backlash)’를 만든 작가 수전 팔루디는 최근 한국을 방문해 이렇게 말했다. 지난 수십 년간 여성의 인권을 신중하고 경제활동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이어지면서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최근에는 오히려 ‘여성에게 자리 주기’에 열증을 느낀 남성들이 역차별이라며 항의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36곳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평균치는 2000년 50.8%에서 2005년 52%, 2008년 53.2%로 올랐고 2013년 54%대로 늘어났다. 2017년 기준으로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여성 중 54.8%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평균치는 2000년 69.9%에서 큰 변화가 없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 68.9%로 내려온 뒤 지난해엔 68.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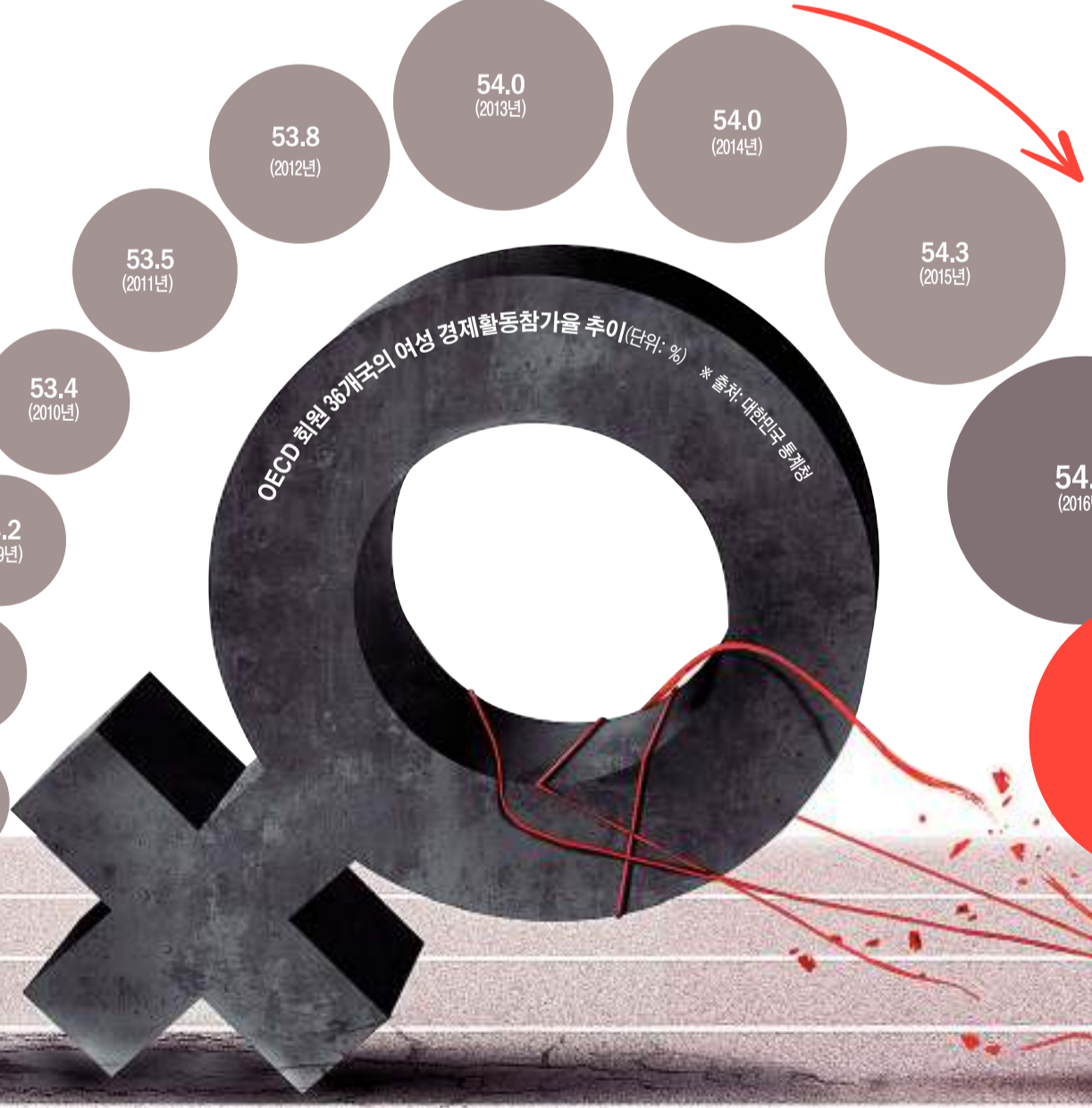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소폭 늘어났지만 남성과 비교하면 아직 13.5%포인트 차이가 나는 셈이다. 특히 OECD 여성 임원 비율은 지난해 기준 21.8%에 이르지 못한다. OECD 여성 임원 비율은 지난해 기준 21.8%에 이르지 못한다. OECD 여성 임원 비율은 지난해 기준 21.8%에 이르지 못한다. OECD 여성 임원 비율은 지난해 기준 21.8%에 이르지 못한다.

성평등 이슈와 관련해 선진국으로 불리는 서구권 국

가들에서 오히려 관리직급 여성 비율이 퇴보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FTSE350(런던 국제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 350개 기업)에서 여성 CEO가 2017년 15명에서 작년 말 기준 12명으로 감소했다. 유리천장이 깨지는 커녕, 위미노믹스 바람에 반발하는 ‘백래시’가 등장하면서 다시 천장이 단단해지고 있는 셈이다.

홍콩 기반의 여자 매체 아시아타임스는 지난해 3월 일본의 위미노믹스에 대해 보도하며 “성장기업의 여성 고용이 늘었지만 대부분 급여와 복지가 적고 해고기 쉬운 비정규직 근로자이며 여성 임원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여성 임원이나 근로자가 많은 기업이 유난히 평균 임금이 낮은 점들을 살펴 유리천장의 착시현상을 견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정다운 기자 gamja@



정부, 女고위관리직 목표제 도입 검토

문재인 정부가 내각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의사결정권 개선을 공언했지만, 우리 사회의 ‘유리천장’은 너무나도 견고하다. 주요 대기업의 연발 정기인사에서 증권사 첫 여성 CEO가 탄생하는 등 파격적인 인사도 눈길을 끌지만, 30대 그룹 산하 기업 여성 임원 비율은 3%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가 국내 30대 그룹 중 지난해 발표를 연초 임원 인사를 단행한 19개 그룹 240개 계열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1968명의 임원 승진자 가운데 여성이 65명(3.3%)을 차지했다.

여성 임원 비율은 올해 처음 3% 벽을 뚫었다. 2014년 1.4%, 2015

년 2.3%, 2016년 2.2%, 2017년 2.3%를 기록했다. 임원 승진자 중 여성이 1명이라도 포함된 기업의 비율은 2014년 9.4%에 올랐지만 16.2%로 늘었다.

5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 현황을 살펴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기업이 조사 대상 기업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여성기초부가 지난해 29일 발표한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현황을 보면 2017년 기준 임원 중 여성은 454명으로 전체의 3%에 불과했다.

최근 4년간 통계를 보면 2014년 2.3%, 2015년 2.4%, 2016년 2.7%, 2017년 3.0% 등 증가 추세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여성 임원 비율 평균인 21.8%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치다. 500개 기업 중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기업은 328개로 65.6%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계자는 “OECD 다른 국가와 비교해 유리천장이 아직도 매우 견고하다”며 “다수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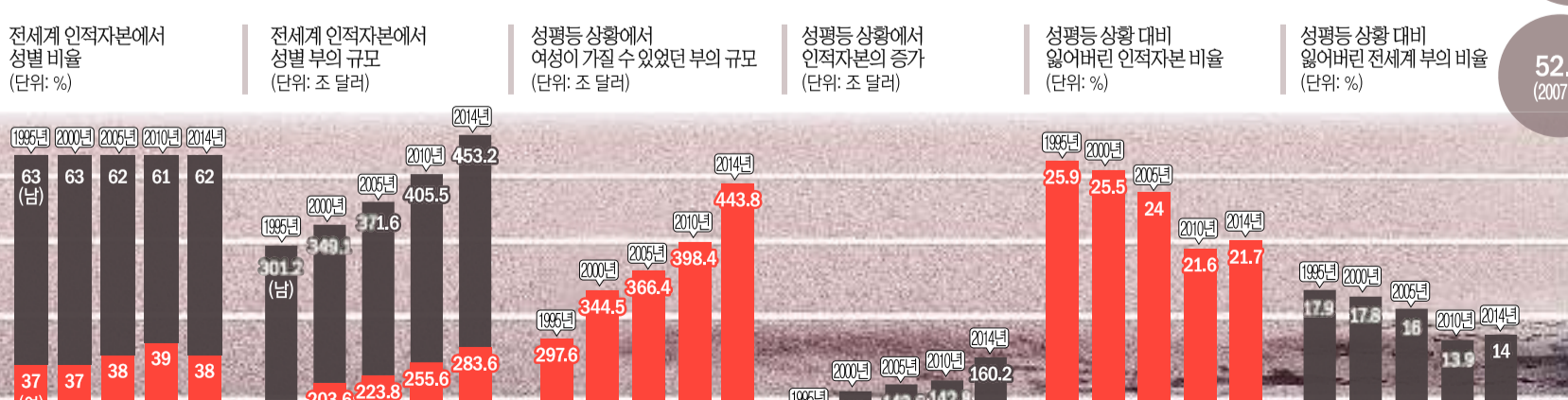
결과에 따르면 우수한 여성 인력을 활용해 유리천장을 해소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가부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을 2018년 수립·시행하며 선도적으로 유리천장을 해소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또 기업과 협약을 체결해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2019년 업무보고에서 발표했다. 아울러 경력단절 예방 강화 교육인 여성 인제 아카데미에 고위관리자 및 중간관리자 교육과정을 확대 개편해 장기적으로 고위직 여성 후보군을 확대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진선미 장관은 “기업의 여성 대표성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여성 임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기업경영진과 국민들의 인식개선과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k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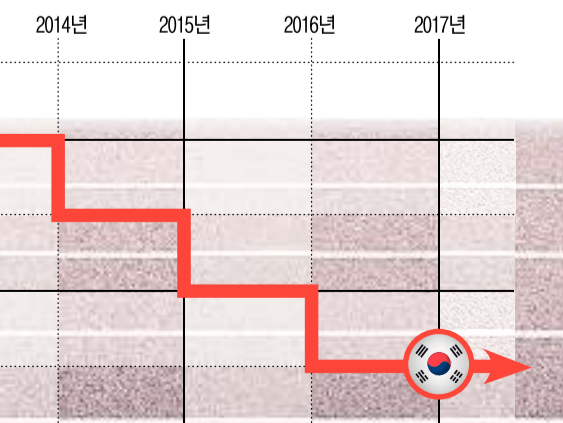
성불평등으로 인한 전세계 부의 손실 (1995~2014년) \* 출처: 세계은행 보고서 '성불평등의 비용(THE COST OF GENDER INEQUALITY)', 쿠엔틴 워드, 2018년 5월



10대 그룹 여성 임원 승진자 비율 (단위: %) \* 출처: CEO스코어

기업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케이티	3.60%	0.00%	7.90%	4.20%	8.80%
미래에셋	7.10%	9.80%	-	-	6.80%
롯데	1.90%	2.90%	2.50%	3.70%	6.20%
포스코	1.40%	0.00%	1.90%	0.00%	5.90%
현대백화점	0.00%	16.20%	8.60%	7.50%	5.00%
CJ	3.60%	15.40%	6.00%	5.70%	4.90%
LG	1.60%	1.50%	2.40%	2.70%	4.50%
삼성	3.30%	3.90%	3.00%	3.20%	4.00%
금호아시아	0.00%	0.00%	0.00%	0.00%	2.90%
SK	1.60%	0.90%	1.90%	1.00%	2.50%
합계	1.80%	2.30%	2.20%	2.30%	3.30%

OECD 주요국가 중 한국의 유리천장 지수 순위 \* 출처: 이코노미스트



# 쇼핑몰 생기자 환영한 소상공인 “유동인구 늘잖아요”

## ‘큐즈몰’ 길 건너 중소 상점가 그곳엔 ‘비명’ 대신 손님 발길

**#오사카** 일본 오사카 시내에 있는 ‘큐즈몰’은 덴노지 상권을 이끈 주역이다. 오사카 남쪽 덴노지가 재개발되면서 7년 전 대형 쇼핑몰인 큐즈몰과 하루카스300 전망대, 킨텐츠 백화점까지 이곳에 자리를 잡았고 새 상권이 형성됐다. 웅장한 나선형 건물이 특징인 큐즈몰은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중소 상점가와 마주하고 있다. 20년째 상점을 지키고 있는 10평 남짓한 규모의 비양슈르 빵집은 기자가 방문한 지난해 12월 16일 점심시간이 지나서야 인터뷰에 응해줄 만큼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제빵사 코지마(24)는 큐즈몰이 생긴 후 빵집 근무자가 5배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큐즈몰이 생기기 전에는 주인 혼자서 일했는데 상권이 커지면서 사람이 몰리고 바빠져 현재 직원은 5명이다”라고 말했다.

큐즈몰과 마주한 상점가 뒤편에서 10년째 오코노미야끼 집을 운영하는 노토(39)는 “원래 저녁 장사만 했었는데 상권이 형성되면서 유동인구가 늘어 주말에는 점심 장사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월 2회 대형 쇼핑몰 휴업을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말에 “우리는 이곳에 쇼핑몰과 백화점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반발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이 많아지겠다고 생각해 환영했던 기억이 있다”며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한큐백화점 인근 중소 상가

## 우메다역 중심으로 자리한 백화점·양판점 인근 상인 “타깃 소비층 달라 경쟁보다 공생”

오사카시 북부 우메다역을 중심으로 한큐백화점, 한신백화점, 양판점인 요도바시우메다, 복합 쇼핑몰인 그랜드프론트오사카 등이 지하도와 구름다리로 연결된 이곳은 ‘쇼핑 메카’다. 우메다역 지하 상가에서 옷을 팔고 있는 핫타(55)는 “그랜드프론트처럼 새로운 매장이 생기면 한동안 그곳을 찾는 사람이 많지만, 우리 가게에서 파는 옷이 필요한 사람들은 다시 돌아온다”며 “대형 쇼핑몰이 생겨 유동인구가 많아진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상권이 발달하자 구인광고도 늘었다. 이날 난바역에서 이어진 쇼핑거리를 5분만 걸어도 매장 밖에 붙은 구인광고 포스터가 10여 개나 눈에 띄었다. 현재 오사카시 최저임금은 936엔으로 985엔인 도쿄 다음으로 높다. 그럼에도 오사카 시내에는 사급 1000엔이 넘는 일자리 광고가 수도룩했다. 아따카리 신발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사키(26)는 사람을 구하고 있으나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안 구해지는 게 문제”라며 “임금이 올라가는 건 사람이 부족해서이니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난바역 구인광고

## 규제 풀어 소비 불씨 되살리자

- ① 일본에서 배운다 ‘복합쇼핑몰-지역업 상생’
- ② 면세점, 외국인·내국인 관광객 두 토끼 잡는다
- ③ 지역·세대 맞춤형 진화로 제2 도약 노리는 편의점
- ④ 홈쇼핑·온라인몰, ‘한국의 아마존’은 나야나
- ⑤ 의무휴업에 발목 잡힌 대형마트, 실험은 계속된다

자영업자를 옥죄는 최저임금은 약정휴일시간을 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주휴수당은 여전히 포함됐다. 사실상 자영업자의 부담은 크게 줄지 않았다. 정부는 복합쇼핑몰에 대형마트와 같은 월 2회 의무휴일을 적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자영업자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은 이미 예견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근 소상공인의 매출도 동반하락한 것이 그 예다.

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2012년 의무휴업 도입 이후 2015년까지 대형마트사의 343개 기존점 매출이 21.1% 감소했고 같은 기간 중소상인 매출은 12.9% 줄어들었다. 사실상 중소상공인이 대형마트 휴무로 인한 반사이익을 거의 보지 못한 셈이다. 복합쇼핑몰에 의무휴업을 적용하면 부작용은 이보다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복합쇼핑몰 입점 업체의 90%가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업들이 신시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대를 거는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입법 추진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함께 기해년 1분기로 미뤄진 상태. 일각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시장경제를 가로막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출점 거리 제한, 가맹사업법 등은 국내에만 존재하는 법이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2000년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 빗장을 푼 후 ‘상생’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통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방안,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할 열쇠는 바로 ‘소비의 활성화’다. 이투데이가 일본 현지 취재를 통해 내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는 해법을 찾아냈다.



긴자식스

## 쇼핑·체험 접목한 ‘긴자식스’ 관광객 유치·상권 부흥 효과

**#도쿄** 2017년 4월 도쿄 긴자 마쓰자카야 백화점 자리에 생겨난 복합쇼핑몰 긴자식스는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에르메스, 샤넬 등 쟁쟁한 명품 브랜드를 포함해 총 241개 브랜드가 입점해 있다. 내국인은 물론 명품 쇼핑과 ‘체험형 유통 콘텐츠’를 결합해 해외 관광객 집객효과까지 일으키며 긴자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은 신유통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최신 트렌드에 맞게 ‘체험형 유통 콘텐츠’로 가득 채워진 긴자식스 내 ‘츠타야’를 지난해 12월 찾아갔다. 서점과 스타벅스가 결합된 ‘츠타야’는 주류까지 팔고 있어 쇼핑몰 안에서 독서, 쇼핑, 음주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다. 이런 특장점 덕분에 평일 낮시간에도 관광객과 도쿄 시민들로 북적였다.

일본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해외 관광객 유치에 주력하면서 긴자식스 영업은 한층 탄력받고 있다. 2017년 방일 외국인 관광객은 2869만 명을 기록했다. 2011년만 해도 662만 명에 그쳤으나, 매년 20%씩 늘어나는 추세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연 4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긴자식스가 불러들인 외국인 관광객은 인근 소상공인 매출에도 도



긴자식스 내 ‘츠타야’

## 서점·스타벅스 결합한 ‘츠타야’ 평일도 인산인해 인근 상점선 ‘단골’ 중심서 외국인 대상 매출 올려

움이 됐다. 긴자식스에서 유라쿠초 쪽에 위치한 중년 여성 패션 전문점 직원인 타마시로는 “뒷 구역에 호텔 2곳이 더 문을 연다고 하더라. 긴자식스 개점 전후로 인근에 호텔들이 들어서면서 유동인구가 많아졌다”면서 “우리 가게는 같은 자리에서만 35년간 운영해왔다. 단골 손님 위주의 정기 매출이었는데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는 덕분에 매출이 10% 늘었다”고 말했다. 식료품점 운영자인 후지모토(65)는 “긴자식스 개점 이후 외국인 관광객들이 혼다시 등 일본 조미료와 소스를 많이 구매해 전보다 월 매출이 15%가량 올랐다”면서 “긴자식스 공사 중이던 2년 전처럼 복합 쇼핑몰이 문을 닫는다면 손님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긴자 상권 내 ‘도쿄 플라자’에 2016년 입점해 영업 중인 롯데면세점의 이성철 긴자점장은 “관광 트렌드가 과거 ‘소비형’에서 ‘체험형’으로 바뀌고 있어 일본 오프라인 유통채널들도 체험형에 신경 쓴다”고 말했다. 이 점장은 “중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우리 면세점도 개점 초기와 달리 시세이도, SKII 등 일본산 화장품 중심으로 브랜드를 많이 바꿨다”면서 “MADE IN JAPAN이 써야 있어야 중국인 관광객들이 선호한다. SKII 등은 재고가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말했다.

도쿄·오사카=이꽃들 기자 flowerslee@·박미선 기자 only@

# “毒이 된 한국 유통법… 선진국선 20년 전 폐지 수준”

프랑스의 로와이에법과 라파랭법, 일본의 대점법은 국내 유통산업발전법과 쌍둥이처럼 닮은꼴 법이다. 이들 법안은 점포면적 규제, 영업시간 제한 등 유통산업발전법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로와이에법, 라파랭법, 대점법은 모두 폐지됐다. 부작용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파랭법의 전신으로 불리는 ‘로와이에법’은 1970년대 제정된 것으로 소형 점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로와이에법은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대형 점포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해 출

## 佛 로와이에법·日 대점법, 국내 유통산업발전법과 닮은꼴 업계 “규제 풀었을 때 자영업 살아나는 효과 해외서 검증”

점을 제한했다. 로와이에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일자 프랑스 정부는 1996년 허가 면적을 300㎡로 완화하는 라파랭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소규모 할인점이 등장하자 허가 면적을 다시 1000㎡로 조정하기로 한 ‘경제현대화법’을 도입하면서 사실상 12년 만에 폐지 수준을 밟았다.

로와이에법과 라파랭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식료품점의 매출 비중은 오히

려 1970년 32.2%에서 2013년 17.8%로 크게 줄었다. 대형 유통점의 출점을 제한했지만 소상공인들의 벌이는 오히려 줄어들었던 것이다.

라파랭법은 그동안 유럽위원회(EC)로부터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받아온 법이기도 하다. 시장 자유 원리에 어긋나는 ‘악법’이라는 이유에서다. EC의 비판을 수용한 프랑스는 결국 경제현대화법 도입으로 규제를 한층 완화했다.

일본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일본판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불리는 ‘대점법(대규모 소매점포에 있어서 소매업의 사업활동의 조정에 관한법률)’도 이미 19년 전인 2000년 소각됐다. 영업면적과 영업시간, 휴업일수 등을 제한해 온 대점법이 오히려 인근 소매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나오자 일본 정부는 ‘대점법’ 대신 소매점 주변 도시 환경 보호에 초점을 둔 ‘대점입지법’을 도입했다. 이 법안은 대형마트로 인해 교통정체나 주차, 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규제만 선택한 것이다.

대점입지법 도입 후 복합쇼핑몰과 주변 상권은 오히려 시너지를 내고 있다. 일본 도쿄의 복합쇼핑몰 ‘긴자식스’의 경우 연간 2000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 명소로 거듭나면서 인근 소상공인들의 매출도 동반 상승하는 효과를 톡톡히 봤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규제 빗장을 풀었을 때 자영업자들이 오히려 살아나는 효과는 이미 해외에서 검증됐다”며 “선진국이 20년 전 실패한 정책을 고쳐쓰겠다는 한국 정부의 발상이 시장 경제에 ‘독’이 되는 사례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희희 기자 yhh1209@

<엔씨소프트 대표>

<카카오 의장>

# 차세대 김택진·김범수 키우진 못할망정 ‘씩’ 자르나

1973년부터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이공계 석·박사가 병무청 지정 기업이나 공공연구소에서 근무하며 병역 의무를 대신하는 제도다. 시행 후 30년간 복무 기간이 5년으로 유지됐지만 2005년부터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됐으며 매년 2500여 명을 선발해 현재 약 7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중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1400여 곳 업체에 1800여 명, 대·중견기업 200여 곳에 600여 명 등 총 2000여 명이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통해 병역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포함한 전환·대체복무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병역충원이 어렵고, 사회적으로 병역 대체복무에 대한 인식이 나빠짐에 따라 이를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 전문연구요원 제도, 우수 인재 이공계 유입에 도움 생산유발액 1조3000억원… 경제적 파급 효과도 커 폐지 땀 중소벤처 기업 인력부족 더 심각해질 전망

이에 중소벤처 업계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IT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온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폐지할 경우 스타트업 업계 인력 부족 문제와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폐지되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서 고급 연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사라져 성장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우수 인력을 이공계에 유입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한다. 올해 초 광속업 서울대학교 교수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대학원생 156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원생 80%는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박사과정 진학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답했다. 이공계 기피 현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62%가 '효과가 높다'거나 '매우 높다'는 답변을 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높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2만778명을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들의 생산유발액은 11조9889억 원(산업기능요원 10조6642억 원, 전문연구요원 1조3247억 원)

에 달한다. 고용유발인원은 3만5022명(산업기능요원 3만629명, 전문연구요원 4393명)에 이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국내 이공계 대학원 진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제도가 폐지되면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인력을 구할 길이 사라져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사라지면 국내 창업 열기도 식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국내에서 성공한 IT기업 중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통해 병역 의무를 해결한 기업인은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이 대표적이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김창욱 스노우 대표, 김종화 봉봉 대표, 안성우 직방 대표 등이 꼽힌다. 이들 외에도 스타트업 주력 개발자 다수가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통해 병역 의무를 이행했으며 기업을 성장시키는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도움을 분명히 받았다. 좋은 인력들이 벤처 업계로 갈 수 있는 창구라고 생각한다"며 폐지를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성준 기자 tiatio@

###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제도 비교

구분	산업기능요원제도	전문연구요원제도
시행연도	1973년	1973년(기업 1981년)
대상기관	중소기업의 공장,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법인기업(산학협력 5~9인 벤처기업 포함)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석사 2인 이상), 중견기업 부설연구소(석사 5인 이상), 국·공립·정부출연 연구기관
복무기간	현역 2년10개월(34개월), 보충역 2년2개월(26개월)	3년(36개월)
인원 배정	현역 6000명(2017년 기준), 보충역 9000명(2017년 기준)	2500명(2017년 기준)업체 수요대로 편입
특이사항	2016년부터 보충역에 한해 중견기업 편입 허용	2013년부터 대기업 배정 중단

###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

	1인당 매출 증가	복무인원	산업생산 증가액	생산 유발액	고용 유발	부가가치 유발액
산업기능요원	2억5800만 원	1만9309명	4조9972억 원	10조6642억 원	3만629명	3조312억 원
전문연구요원	4억5900만 원	1469명	6747억 원	1조3247억 원	4393명	4623억 원



## 병특 축소 '후폭풍'... 이공계 대학원 인기 뚝

1일 서울대 공과대학의 한 연구실.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기록지에 실험 데이터를 기록하는 등 바쁜 모습이였다. 하지만 연구실 책상에는 군데군데 빈 곳이 눈에 띄었다.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대신하고 있다는 이 학과 박사과정 4년 차 한 학생은 "대학원 인기가 점점 떨어지면서 몇 년째 이런 분위기"라며 "대학원에서 전문연구요원을 하거나 석·박사과정 이후 병역특례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게 이공계 대학원 다니는 큰 이유 중 하나였는데 병특이 축소된다고 하면서 후배들이 대학원 오기 싫어한다"고 말했다.

같은 대학 자연계열 대학원의 또 다른 박사과정생도 "지원자 수도 줄었고 수준이 안 되는 데 무작정 받아 주지는 않겠다는 것이 대학원의 특징이라 이런 현상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다"며 "군 문제 해결 목적으로 대학원 가는 건 아니지만 군대 갔다와서까지 국내 대학원에 진학할 만한 메리트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대학원 진학 기피가 급격히 심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로는 취업난도 있지만 대학원 진학을 통해 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학생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병역대체 복무제도가 2020년 이후 축소되거나 단계별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8학년도 전후기 서울대 공대와 자연대 대학원(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 경쟁률은 각각 0.88대1, 0.95대1에 그쳤다.

서울대에 따르면 공대와 자연대 지원자가 모두 미달한 것은 사상 최하다. 서울대 공대는 올해 후기 석·박사 통합과정 모집에서 전체 15개 전공 중 절반이 넘는 8개에서 대거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여기에 정부의 '탈원전' 정책까지 겹치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를 올 2학기에 94명

### 서울대·카이스트 미달 사태 '인재 양성의 장' 근간 흔들려

### 중소기업 현장 '인력 기근'... 4차 산업혁명 동력 약화 우려

의 1학년 재학생 중 전공으로 아무도 택하지 않는 사태 발생하기도 했다. 한 지역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는 "국내 최고 대학으로 꼽히는 서울대와 KAIST에서도 미달 사태가 날 정도인데 중하위권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에 의존하며 겨우 숫자를 채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 연구인력 양성의 근간이었던 이공계 대학원이 학생 부족을 호소하는 지경이 되면서 여파가 산업현장으로 미

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술 위주의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병역대체복무는 양질의 인력을 공급받는 중요한 통로였기 때문이다.

한 중소기업인은 "고학력의 양질 연구인력을 최소 3년 이상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은 늘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는 큰 도움이 된다"며 "대체복무가 없어지면 인력을 채용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학원에서 중소기업 현장에 이르는 '인력 기근' 현상이 결국 국내 4차 산업혁명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체복무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급 이공계 인력 부족은 계속된 이슈였기 때문이다. 한국 고용정보원의 '2015-2025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공학계열은 2025년까지 전기전자·기계 금속·건축토목도시·컴퓨터통신·화학공학 등 5개 전공의 인력이 계열별로 2만~7만7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정부가 계속해서 이공계 인력 수급 현실을 외면하면 결국 연구 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특례나 양심적 병역거부 등을 인정하면서 전문연구요원 제도 등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공계의 박탈감과 인력 이탈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 '벤처 육성' 정책 기조와도 배치

### "청년자원 부족 현실 외면" "국가적 손실" 업계 우려의 시선

정부가 병역대체 복무제도의 축소·폐지 방침을 내놓으면서 중소·벤처 기업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국가적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중소벤처 병역특례 1호 기업인 비트컴퓨터의 조현정 회장이 있다. 조 회장은 산업기능요원 대체 복무 제도를 만든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비트컴퓨터 전에는 방위산업체에만 산업기능요원이 투입됐지만, 비트컴퓨터 이후 소프트웨어 기업에도 대체복무가 가능해졌다는 뜻이다.

조 회장은 "제도를 만드는 데 참여한 당사자로서 개인적으로 씩씩한 측면도 있다"며 "병역대체 복무제도 폐지는 국가적 경쟁력의 상실"이라고 밝혔다. 현재 비트컴퓨터에는 9명의 전문연구요원이 일하고 있다.

조 회장은 병역특례의 첫 번째 존재 이유가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청년 자원이 부족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병역대체 복무제도 폐지가 중소기업과 벤처 육성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키운다면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배치되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문 정부는 출범 이후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했고,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문 대통령은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 기업을 육성해 성장과 일자리에 함께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을 활용하는 기업들의 만족도도 실제로 매우 높다.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이 발표한 '중소기업 병역대체 복무제도의 효과성 및 정책과제'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의 직무 수행 역량에 관해 중소기업 72.6%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전문연구요원의 직무수행 역량에 대해서는 85%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노 연구위원은 "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높은 것은 중소기업에 만족할 만한 역량을 가진 인재들을 투입하는 효과가 존재한다는 의미"라며 "병역대체 복무제도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 과학기술·ICT R&D 4.3兆 투입

## 과기부,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1.2兆  
 지난해보다 2288억 늘어  
 친환경 수소 생산·저장·이용 등  
 차세대 기술개발 신규 지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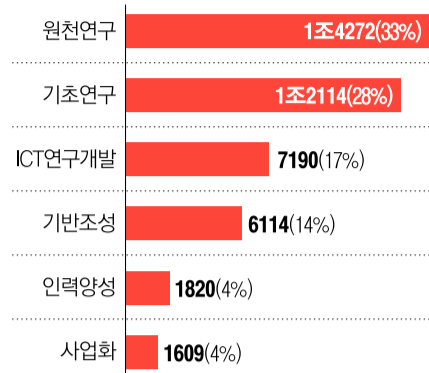
정부가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에 4조 3149억 원을 투입한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연구 1조2114억 원 △원천연구 1조4272억 원 △ICT 연구개발 7190억 원 △R&D 사업화 1609억 원 △인력양성 1820억 원 △R&D 기반 조성 6114억 원 등 2019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 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의 자율·창의성 극대화를 위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작년보다 2288억 원 많은 1조2006억 원을 투자한다.

ICT 분야는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분야별 투자규모  
 (단위: 억 원, 괄호 안은 비중)



를 반영할 수 있는 'RFP(Request For Proposal·제안요청서) 공모제'를 신설했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미래 유망 원천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바이오 분야 예산은 지난해 3745억 원에서 올해 3952억 원으로 5.5% 증액했다.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 발굴사업(80억 원)과 오믹스 기반 정밀의료 기술개발사업(60억 원), 인공지능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사업(50억 원)을 새로 시작한다.

나노소재 분야에서 기존 기술 한계 돌파 기술과 새로운 원천기술 개발 지원 등을 확대한다. 나노소재 분야 예산을 작년 대비 3.2% 늘어난 1106억 원을 편성했으며, 나노소재 기술개발사업에는 494억 원을, 미래 소재 디스커버리 지원사업에는 318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과기정통부는 친환경 수소 생산·저장·이용 등 수소에너지 전 주기에 걸쳐 차세대 기술 개발도 신규 지원한다. 수소에너지 혁신기술개발에 102억 원을,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연료전지)에는 108억 원을 각각 투자한다.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하고 향후 기후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도전적 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우주 발사체 자력 개발과 독자 위성기술 확보에 40억 원을 투입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시행계획을 1월 2일자로 공고하는 한편, 과학기술·ICT R&D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에 대한 지역별 설명회를 이달 중 개최할 예정이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SK텔레콤은 1일 서울 중로 보신각에서 5G 상용망과 생중계 솔루션을 활용한 TV 생방송을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이날 'XtvN' 개그맨 조영민 씨(왼쪽)가 'T라이브캐스터'를 활용해 생중계하고 있다. 사진제공 SKT

## SKT '보신각 타종' 5G 생방송

세계 최초 5G 상용망 활용 TV 생중계 성공  
 'T라이브' 앱 설치하면 스마트폰 중계도 가능

SK텔레콤은 세계 최초로 5G 상용망과 생중계 솔루션을 활용한 TV 생방송에 성공했다고 1일 밝혔다.

SK텔레콤은 1월 1일 0시경 서울 중로구 보신각에서 신년 카운트다운, 타종 행사, 인터뷰 등을 엔터테인먼트 채널 'XtvN'을 통해 총 3차례 11분간 실시간 방송했다.

중계에는 지난해 12월 1일 시작한 5G 상용 서비스와 4년간 개발한 SK텔레콤 생중계 솔루션 'T라이브캐스터'가 쓰였다.

'T라이브캐스터'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5G·LTE 등을 통해 TV, 개인방송 등 다양한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사, 스포츠 중계 등 미디어 분야 외에 재난·안전을 위한 영상 관제 분야(강원소방본부, 대구지방경찰청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이날 SK텔레콤은 5G 모바일 라우터와 연결된 스마트폰으로 현장을 촬영했다.

촬영 영상은 5G 기지국에서 상암동

'XtvN' 송출 시스템을 거쳐 케이블·IPTV 시청자에게 방영됐다.

보신각 현장과 시청자 간 시차는 거의 없었다. 촬영 영상은 방송 송출시스템으로 1초 이내 전달됐다.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유선 기반 생방송과 전송 속도가 같은 수준이다.

이번 생중계는 5G의 고용량 데이터 전송 및 다중 연결 특성을 통해 인파가 몰린 곳에서도 안정적으로 고품질 방송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데이터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는 행사장, 야구장 등에서도 '5G 생중계'가 널리 쓰일 수 있다.

아울러 고가의 방송 전문장비 없이 'T라이브캐스터'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만으로 생중계가 가능해져, 고품질의 개인방송 확산도 기대할 수 있다.

SK텔레콤 방송 중계 기술과 5G의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특성이 결합하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고품질의 생방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김범근 기자 nova@

## "라이트 유저도 부담없이"... 지니뮤직, 저가형 음악상품 출시

음원 저작권료 상승 반영...

'무제한 스트리밍 음악감상'

'스마트 음악감상' 600원 인상

지니뮤직이 고객들의 부담을 줄이는 저가형 음악상품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2019년 1월 1일 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이 적용되면서 국내 음악 서비스사들은 스트리밍 서비스 시 창작자에게 65%, 다운로드 시 70%를 창작자에게 수익을 배분해야 한다.

지니뮤직은 스트리밍 서비스 시 창작자들에게 내야 할 음원 저작권료 비율이 5% 포인트 늘어나면서 원가 부담이 커져 일부

음악상품 가격을 인상했다.

스마트폰 전용 '스마트 음악감상'은 7400원, '무제한 스트리밍 음악감상' 상품은 8400원으로 각각 600원 인상됐다. 이번 상품 가격 인상은 신규 가입자들에게 적용된다.

이런 가운데 지니뮤직은 고객들의 부담을 줄이는 저가형 음악상품을 선보였다.

지니뮤직이 새롭게 론칭한 상품은 '5곡 다운로드'와 '10곡 다운로드'다. 소액으로 음악을 소유하고 감상하고 싶은 고객들을 위해 만든 이 상품은 아티스트의 싱글 앨범이나 정규 앨범을 저렴한 가격에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홍세희 지니뮤직 지니사업본부장은

"고객들은 자신의 음악 소비 패턴을 반영하는 다양한 음악상품이 출시되길 원했다"며 "음악 서비스 지니는 스트리밍, 다운로드 영역에서 라이트 유저들이 자유롭게 음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가형 상품들을 출시했고 앞으로도 고객 소비패턴을 음악상품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니뮤직은 2015년부터 국내 음악 업계 최초로 고객의 스트리밍 음악 이용 패턴을 음악상품에 반영해왔다. 2015년 출시된 '알뜰 음악감상' 상품은 고객이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감상한 만큼 비용을 내는 종량제 상품으로 라이트 유저들에게 유리하다.

김범근 기자 nova@

랜섬웨어 정보센터 www.hauri.co.kr

알려지지 않은 최신 랜섬웨어

바이로봇 Anti-Ransomware

보안취약점을 통해 유입되는 랜섬웨어

바이로봇 APT Shield 2.0

이미 알려진 랜섬웨어 동작 시

바이로봇 7.0

당신의 소중한 파일을 노리는  
**랜섬웨어**

**하우리, 바이로봇으로 차단하세요!**

수년간 축적된 소중한 데이터를 한 순간에 암호화 시켜버리는 랜섬웨어, 대한민국 대표백신, 바이로봇 솔루션으로 랜섬웨어를 차단하고 소중한 데이터를 지키세요.

(주) 하우리 | 서울시 중로구 을지로 238 (여말빌딩) 6층 | 대표전화 02-3576-1100 **HAURI**

# 포화상태 외식시장 '프리미엄'으로 승부

외식업계에 프리미엄 바람이 불고 있다. 음식점 수가 인구 78명당 1개로 집계될 만큼 포화함에 따라 기존 브랜드에 메뉴와 매장 인테리어를 변화시키면서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1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프리미엄 브랜드를 손꼽아 소개하면 '올반'이 대표적이다. 서울 서초구 신세계푸드는 최근 한식 뷔페 '올반'의 대표 매장인 서울 센트럴시티점을 '올반 프리미엄'으로 재단장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시티 파미에스테이션 1층에 문을 연 '올반 프리미엄'은 기존 매장보다 맛과 서비스는 물론 실내 인테리어까지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주문 즉시 만들어주는 홈메이드 철판 합박스테이크를 비롯해 장어 숯밥, 찹스테이크, 양념목살구이, 삼겹살, 새우구이, 한치구이 등은 메뉴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또 디저트를 중시하는 고객을 위해 프리미엄 커피 전문점 '폴바셋'과 53년 전통의 떡 전문점 '종로복떡방'과 제휴해 운영하는 '디저트 슝(DESSERTS-HOP)' 코너를 매장에 설치하고, 주문 시 즉석에서 갈아 제공하는 주스를 비롯해 베이커리, 음료, 과일 등을 선보였다.

인테리어도 기존 매장에 비해 고급스럽게 바꾸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모임, 파티



인구 78명당 음식점 1개꼴  
센트럴시티 '올반 프리미엄'  
계절밥상 IFC 직화구이 등  
메뉴 차별화·고급화 움직임

등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독립 공간을 구성했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스테이크 하우스 VIP스(VIPS)는 대구의 신시가지 핵심 상권에 '골든 암스테이크'와 '아이스크림바'를 들인 '대구 죽전점'을 열었다.

VIP스의 대표 스테이크인 암스테이크를 200도로 달군 황금색 유기 그릇에 선보이고, 스테이크 제공 시 고객 앞에서 고기에 직접 버터의 풍미를 입혀 제공하는 '버터\*몽테(monte)' 서비스도 선보였다. 골든 암스테이크는 랍아이, 안심,

채끝 3가지 부위로 제공하고, 프리미엄 스테이크인 토마호크와 포터하우스도 선보여 특별함을 더했다. 또 스위트업(Sweet-Up) 콘셉트 매장으로 '아이스크림 바'도 갖췄다.

한식 뷔페 계절밥상 IFC점도 직화구이 전문 '서울 통구이', 해산물 코너 '진미수산', '일품주막' 등 8종의 고급 메뉴로 한식 고급화에 나섰다.

이밖에 '저렴한 한 끼'로 대표되는 분식 매장이 고급화에 나서고 있다. 45가지 분식 메뉴를 갖추고 깔끔한 인테리어로 분식 레스토랑을 표방하고 있는 안샘김밥을 비롯해 식사부터 안주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청년다방, '마리'라는 새로운 메뉴를 개척한 스킵푸드 등이 대표적이다.

백미선 기자 only@



## 황금돼지 저금통에 저축하고 부자되세요

이마트가 기해년 새해를 맞아 황금돼지저금통 4종을 선보였다. 이마트는 전국 이마트 점포 및 이마트몰에서 황금돼지저금통을 4000원(중), 6000원(대), 황금엘피스저금통을 3900원(중), 5800원(대)에 판매한다. 황금돼지저금통은 금색 유광으로 코팅 처리해 고급스러워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사진제공 이마트

## 한우 등심 가격 확 내린 이마트

### 유통 구조혁신 상반기 33% 할인

이마트가 올해 상반기 동안 한우 등심 가격을 33% 할인된 가격에 상시 판매하기로 했다.

이마트는 3일부터 7월 3일까지 약 6개월 동안 'Wet에이징' 한우 등심 1등급/1+등급(100g 기준)을 각각 5990원, 6990원에 상시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올 상반기 상시 할인가는 정사가(1등급 9000원,

1+등급 1만500원) 대비 약 33%가량 할인된 가격이다.

이마트가 할인된 가격으로 동결해 판매할 수 있는 비결은 직영 미트센터의 자체 숙성고를 통해 가공비용을 줄이는 유통 구조혁신 덕분이다. 또한 이마트 축산 바이어들이 직접 한우 경매에 참여해 원물을 매입하고, 자체 마진을 줄이는 노력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마트가 한우 등심 가격을 인하하고 동

결한 이유는 한우를 구매하는 고객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또한 저렴한 수입육을 선호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어 한우 소비 증진을 통해 국내 한우 농가를 돕기 위한 이유도 있다.

실제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따르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소고기 수입량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2.2% 증가한 38만 3000톤을 기록했다. 특히 미국산 소고기의 경우 전년 대비 35.1% 증가했다. 이마트에서도 2015년 48.2%이던 수입소고기 비중은 지난해 55.5%까지 상승했다.

남주현 기자 joo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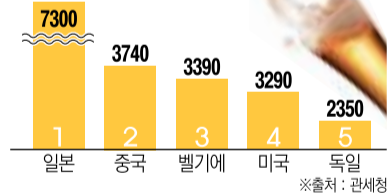
## 한국인 입맛 흠친 '일본 맥주'

### 2018 수입맥주 결산

수입액 7300만 달러 '선두' 아사히 인기...샤프로 급증 中·벨기에·美·獨 순 뒤이어

### 2018년 맥주 수입액

(단위 : 만 달러, 기준 : 1~11월)



지난해 수입맥주 가운데 일본 맥주가 가장 인기 국가 맥주로 꼽혔다. 중국 맥주 수입은 주춤한 반면 벨기에, 미국 맥주 수입은 빠른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1일 관세청에 따르면 2018년 1~11월 맥주 수입액은 2억8800만 달러로, 이미 2017년 1년치 수입액(2억6300만 달러)을 넘어섰다. 1~11월간 월평균 수입액이 2600만 달러였다는 점에 비춰 보면 지난해 1년치 수입액은 3억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국가별로는 2017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일본 맥주가 1위를 차지했다. 수입액은 7300만 달러에 이른다. 2017년 기준 일본 맥주 수출액의 63%(80억 엔)가 한국에 수출됐다.

브랜드별로는 아사히의 비중이 가장 컸고, 에비스를 앞세운 샤프로도 증가세가 뚜렷했다.

중국 맥주 수입액은 3740만 달러로 두 번째로 많았지만, 전년 1년치(3770만 달러)와 비슷한 수준에 그쳤다.

3위는 벨기에 맥주다. 벨기에 맥주 수입액은 3390만 달러를 기록했다. 벨기에 맥주 수입액은 2016년 128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이듬해 2배 넘게 증가하는 등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맥주 수입액도 전년(1740만 달러)의 2배 수준인 3290만 달러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2014~2015년 수입액 2위를 차지했던 독일 맥주는 2350만 달러어치 수입에 그치면서 전년 대비 한 단계 밀려난 5위에 머물렀다.

뒤이어 네덜란드·아일랜드 맥주는 6·7위를 기록했고 체코·폴란드·프랑스 맥주도 10위권 내 이름을 올렸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heaven mania

Enjoy Woman's Life  
인생을 즐기는 필수 조건

그녀들의 유쾌한 수다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MUSICAL

# 메노포즈

M E N O P A U S E

by Special License with GFour Productions, LLC.

**2018 연말 모임 PICK! 뮤지컬 <메노포즈> 특별 단체 할인**  
| 전화예매 | (주)플레이앤씨 070-5015-2664 | 클럽서비스(주) 1577-3363

2018. 11. 27 - 2019. 1. 20 광림아트센터 | BBCH홀

이경미 · 문희경 · 신효범 · 김선경 · 류보영 · 조혜연 · 황서정 · 홍지민 · 박주현 · 주아 · 장미주 · 박종민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2019년

더 큰 꿈을 위해 **KB국민은행**이  
든든한 **희망**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KB 국민은행



1959년생 126명 가장 많아  
1971년생 CEO도 61명이나  
23년생 2명 등 노익장 과시

2019년 기해(己亥)년은 돼지띠 해다. 특히 천간(天干)인 기(己)는 오행으로 토(土)에 해당돼 노랑색 즉 황금빛을 의미하고, 지지인 해(亥)는 돼지를 의미해 황금돼지띠 해가 된다고 한다. 풍요를 뜻하는 황금과 돼지가 만났으니 재물이 많이 따르고 큰 복이 올 것이라 기대들이 높다.

하지만 실제 국내외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대내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과 더불어 내수 침체, 국내 제조업의 불확실한 전망 등이 국내 경제 발목을 잡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미국발 금리인상, 미·중 무역전쟁, 미국 경제 성장을 둔화 우려 등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장급 이상 최고경영자(CEO) 가운데



# 황금돼지해 '복덩이 CEO' 는 누구?

## 강희태 롯데쇼핑 대표

### 현장경험 풍부한 승부사...신동빈 회장도 재신임

지난해 연말 롯데 인사의 키워드는 '세대교체'였다. 롯데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고배를 마셨지만 강희태 롯데쇼핑 대표는 건재했다.

세대교체라는 칼바람을 피한 그에게 올해는 어느 때보다 특별한 한 해다. 1959년 생인 강 대표는 지난해 유임으로 롯데쇼핑 대표 3년 차를 맞이하게 됐다. 백화점 업계 전반이 실적 부진에 허덕이는 가운데 그는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 2.7%, 영업이익 37.3% 성장을 견인했다. 신동빈 회장이 그를 유임한 배경도 지난해 거둔 비교적 안정적인 실적 때문으로 분석된다.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배경은 비효율 점포를 정리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다. 중국에서의 백화점 철수 사업이 올해 본격화됨에 따라 올해 외형적인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 회장이 강 대표를 유임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 대표는 어느 임원보다 현장 경험이 많다. 잠실점장, 본점장, 영남지역장 등을 거치며 매장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다. 비효율 점포의 과감한 정리도 현장에서의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기사희생'에 성공한 강 대표가 이끌어갈 올해의 롯데쇼핑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 유현희 기자 yhh1209@

## 김도진 기업은행장

### 힘있는 리더십 '도진스키'...디지털 변화 도모

금융권 대표적 돼지띠 최고경영자(CEO)로 김도진 기업은행장이 꼽힌다. 김 행장은 '도진스키'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체격이 러시아 사람을 연상하게 할 만큼 건장한 데다 업무에서도 선이 굵고, 힘 있는 리더십을 보여줘 러시아 사람 이름에 자주 붙는 '스키'가 합쳐졌다. '정직하고 솔직, 단순하며 아주 강인하다'는 돼지띠의 기질을 잘 보여준다.



김 행장은 내부 출신 2번째 행장으로 취임 후 기업은행의 사상 최대 실적을 이끌고 있다. 지난해 기업은행의 순이익은 1조508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0% 가량 증가했다. 취임 당시 '동반자 금융'을 선포해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IBK 동아시아벨트' 구축이라는 포부도 이뤄내고 있다. 올해만 해도 러시아 진출, 캄보디아 지점 개점, 인도네시아 법인 설립 등의 성과를 냈다.

김 행장의 다음 행보는 '디지털 금융'이다. 김 행장은 지난해 8월 창립 57주년 기념식에서 '디지털 코어뱅크' 전환을 목표로 비대면 영업채널 강화를 밝혔다. 이날 김 행장은 "IBK 핵심 역량을 디지털 속에서 재창조할 것"이라며 "시스템 변화와 기술 도입을 넘어 전례 없는 변화와 깊이를 각오한 '완전한 변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 김영섭 LG CNS 대표

###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 중심 LG CNS' 만들 것

김영섭 LG CNS 대표는 2019년 4차 산업혁명 IT기술 7개 분야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김 대표는 지난해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다양한 산업에 적용 가능하도록 '플랫폼 사업'을 강화했다. 특히 미래 성장성이 높고 기술적 차별성을 갖춘 플랫폼·솔루션을 브랜드화했다. 이는 △시스템통합(SI)·시스템매니저(SM)에서부터 플랫폼·솔루션까지 사업 전 영역에서 선도적 위상 확보 △기업 비즈니스(B2B) 영역에서 LG CNS만의 기술 및 서비스 차별성과 고객 신뢰도 제고 △정예화된 기술 인재 기업 이미지 강화 추진 등을 위해서다. 김 대표가 제시한 7개 브랜드는 DAP(AI빅데이터), 팩토바(스마트팩토리), 모나체인(블록체인), 인피오티(사물인터넷), 시티허브(스마트시티), 오롯(로봇서비스), 에너티트(스마트 에너지) 등이다.



지난해부터 신규 클라우드 플랫폼을 출시하는 등 지속적인 전략 브랜드 확대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SNS와 기술 전시회 및 박람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략 브랜드 마케팅에도 나섰다. 김 대표는 전략 브랜드를 자산화하고 고객 및 업계에 알려 '기술 중심의 LG CNS' 이미지를 공고히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우람 기자 hura@

## 서정수 셀트리온제약 대표

### 美·유럽 중심 의약품 경쟁력 제고 '진두지휘'

서정수 대표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동생으로 제약업계 대표적인 형제 경영 사례다. 인하대 회계학과를 졸업한 서 사장은 GS건설 상무를 지낸



뒤 2012년 셀트리온에 입사했다. 셀트리온 엔지니어링 부문을 거쳐 2014년 셀트리온 사장으로 승진했다.

셀트리온제약은 셀트리온그룹의 완제의약품 전문기업이다. 최근 셀트리온이 화학합성 의약품을 필두로 한 글로벌 케미컬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셀트리온제약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서 대표는 2016년 3월 셀트리온제약 대표이사에 취임,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취임 첫해 매출액 1000억 원 고지를 달

성한 데 이어 지난해 매출액 1360억 원을 올리면서 오너 일가 경영에 대한 세간의 우려도 불식시켰다.

올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 승인을 획득한 청주공장을 기반으로 해외 진출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미국에 이어 유럽 의약품 제조시설 GMP 승인을 얻고,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유혜은 기자 euna@

## 윤재춘 대웅제약 사장

### R&D 결실 맺는 해...글로벌 헬스케어 도약 목표

제약업계의 대표적인 돼지띠 CEO인 윤재춘 대웅제약 사장은 1959년 생이다.

윤 사장은 카이스트 경영학 석사 출신이다. 2012년 대웅제약그룹 지주사인 대웅의 경영지원본부장 전무, 2014년 대웅제약 부사장을 역임했다. 2015년 7월부터 대웅제약그룹 지주사인 대웅 대표이사 사장직을 맡으며 대웅그룹 사업을 총괄해 왔다. 올해 3월 대웅제약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됐다. 계열사인 한울바이오파마 대표도 겸하고 있다. 1975년 생인 '젊은 피' 전승호 사장과 함께 대웅제약을 이끌고 있는 윤 사장에게 2019년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해가 될 전망이다. 대웅제약이 개발한 보툴리눔 독소 '나보타'가 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판매 허가 승인을 앞두고 있고, 한울바이오파마와 공동 임상 중인 안구건조증 치료제의 기술 수출 기대감이 높아지는 등 연구·개발(R&D)이 결실을 맺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웅제약은 '글로벌 비전 2020'을 선포한 바 있다. 글로벌 비전 2020은 2020년까지 각 진출 국가에서 10위권에 진입하고, 100개국 수출 네트워크 구축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혜은 기자 euna@

## 장희구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장

###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 'CPI필름' 선점 주력

장희구 코오롱인더스트리 대표이사 사장은 1959년 생 돼지띠다.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한 장 사장은 1986년 말 코오롱 그룹에 입사했다. 이후 ㈜코오롱 원사판매과, 경영기획실, 도쿄사무소, 경영기획팀, 구매팀 등에서 경력을 쌓았다. 2013년에는 코오롱플라스틱 사업본부장을 맡았고, 이듬해 코오롱 대표이사에 올랐다. 코오롱플라스틱을 맡은 뒤에는 꾸준히 회사를 성장시켰고, 이 성과를 인정받아 2018년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코오롱인더스트리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2014년 전무로 승진한 지 4년 만에 사장으로 고승 승진한 '능력자'인 셈이다.



올해 장 사장은 '1조 원 가치' 시장으로 평가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 투명 폴리이미드필름(CPI) 시장 선점에 주력할 전망이다. 그룹의 신성장동력으로 꼽히는 CPI필름은 투명하고 강도가 세면서도 부드럽게 휘어진다는 특성 때문에 폴더블 스마트폰의 핵심 소재로 떠오르고 있다. 나아가 둘둘 말아서 휴대할 수 있는 롤러블 디스플레이, 가볍고 얇아 벽에 탈부착이 가능한 월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에 쓸 수 있어 향후 발전 가능성도 높다. 변효선 기자 hsbyun@

## 함영준 오투기 회장

### 국가별 맞춤 제품 개발...글로벌시장서 '갯뚜기'

1959년 생인 오투기 함영준 회장은 식품업계 대표적인 돼지띠 CEO로, 오투기 창업자인 함태호 명예회장의 장남이다.

그는 1984년 오투기에 입사해 '식품보국'을 기치로 삼은 오투기의 경영혁신을 주도했다. 2000년 3월부터 오투기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된 이후 함 회장은 2007년 오투기 매출 1조 원을 이끌었으며, 지난해에는 매출 2조 원을 달성시켰다. 이에 오투기는 국내 식품회사 중 가장 많은 1등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함 회장은 1993년부터 5S 운동을 시작으로 4무 운동, 5제로(사고·결점·정지·품질·휴근제로) 운동 등을 전개하며 생산성 향상을 주도했으며, 1996년 국내 최대의 가족요리 대회인 '스위트홈 오투기 가족요리 페스티벌'을 개최해 23년간 지속해온 주역이다. 경영의 효율화를 중시한 함 회장은 ERP 도입 등 전략적 경영정보 시스템과 선진업무 모델을 구축한 바 있다.

2019년 오투기는 미래성장동력은 글로벌 시장이라는 생각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이며, 다양한 국가의 특성에 맞는 제품을 개발해, 글로벌 경영에 한층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돼지띠 해에 태어난 인사는 모두 229명이다. 출생연도 별로는 새해에 환갑을 맞는 1959년생이 126명으로 가장 많고, 만 48세가 되는 1971년생도 61명이나 된다. 1923년생 2명, 1935년생 3명, 1947년생 33명 등 노익장을 과시하는 CEO들도 꽤 된다.

돼지띠 생의 대체적인 성격은 정직하며 강인하다고 한다. 이 해에 태어난 사람은 튼튼하고 용감해 주어진 임무에 온 힘을 기울여 몰두하고 그 일을 틀림없이 해낸다고 한다.

돼지띠 CEO들이 신뢰성과 성실성 등의 장점을 십분 발휘해 올해도 한국 경제를 순탄하게 이끌어갈 기 대하면서 이들의 신년 포부를 들어봤다.



# 신뢰·성실 겸비 풍요로운 미래 약속

## 손태승 우리은행장

### 우리금융지주 초대회장 중책 '지주사 안정' 목표

2019년 기해년에 주목되는 금융권 돼지띠는 바로 손태승 우리은행장이다. 손 행장은 1959년 생으로 내년 만 60세다. 그는 전주교를 나와 성균관대 법학과와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를 마쳤다. 헬싱키경제경영대학원에서 MBA를 했다. 자타 공인 글로벌 전문가다. 미국 뉴욕지점과 LA지점장 등 해외지점 근무, 글로벌사업본부장과 부회장, 글로벌 부부장 등 글로벌 업무만 10여 년을 했다.



손 행장으로서 내년 한 해가 중요하다. 1월 새로 태어나는 우리금융지주 초대 회장을 맡기 때문이다. 임기는 2019년 사업연도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2020년 3월까지다. 손 행장은 우선 조직 안정에 집중한다. 이번에 지주로 편입하지 않은 우리카드와 우리종합금융을 안전히 지주사로 편입해야 한다. 이들 두 개사는 규모가 커 오버행(잠재적인 과잉 물량 주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식 교환 비율을 정하기 쉽지 않다. 지주사 전환으로 10% 내외로 떨어질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도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 손 행장에게는 '지주사 안정'이라는 중요한 새해 목표가 있는 셈이다. 이새하 기자 shys0536@

## 조현상 (주)효성 총괄사장

### 안정적 '형제경영' 도모...글로벌 기업 도약 꾀걸음

효성그룹의 오너 3세 조현상 (주)효성 총괄사장은 1971년 생 돼지띠다.



조석래 명예회장의 3남인 조 총괄사장은 경북고, 연세대를 거쳐 미국 브라운대(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배인 앤 컴퍼니(Bain & Company) 서울 지사, 도쿄 지사에서 컨설턴트로 근무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그는 1998년 효성에 입사해 산업자재PG장, 화학PG CMO 등을 거쳤으며 2018년 (주)효성 총괄 사장에 선임됐다. 그는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효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2006년 글로벌 타이어 메이커 굿이어와 32억 달러 규모의 타이어코드 장기 공급계약을 맺고, 미국·유럽·남미의 굿이어 타이어코드 공장 4곳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 타이어 보강재 PU가 세계 1위의 위치를 압도적으로 공고히 하는 데 밑바탕이 됐다. 이듬해인 2007년에는 세계경제포럼이 선정하는 '차세대 글로벌 리더'에 선정되기도 했다.

조 사장은 당분간 형인 조현준 회장과 함께 안정적으로 효성그룹을 이끌어 나갈 전망이다. 변효선 기자 hsbyun@

## 이상호 11번가 대표

### '최태원의 믿을 맨' 진화한 이커머스 관심 집중

지난해 9월 11번가는 SK플래닛에서 분할해 새롭게 출범했다. 새 출발하는 11번가의 수장으로 발탁된 이상호 대표는 1971년 생 돼지띠다.



그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이커머스 육성을 공언하면서 11번가의 분리를 결정한 후 발탁한 인사라는 점에서 '최태원의 믿을 맨'으로 불린다. 이 대표는 SK플래닛의 기술총괄(CTO)을 거쳐 SK텔레콤에서 AI(인공지능) 서비스를 총괄해 온 음성검색 분야 전문가다. LG전자, NHN과 카카오를 두루 거친 후 SK에 영입된 그는 대표이사 취임 초 한층 진화한 이커머스를 보여 주겠다고 자신했다.

이 대표는 11번가 출범식에서 '커머스 포털'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커머스포털은 쇼핑정보 취득, 상품검색, 구매 등 쇼핑과 관련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오픈마켓의 강점을 살리면서 쇼핑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올해 그에게 주어진 과제다. 그는 앞서 출범식을 통해 이에 대한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 윤석빈 크라운해태홀딩스 대표

### '국내 디자인 박사 1호' 내실·경쟁력 강화 전략

1971년 생 돼지띠인 윤석빈 크라운해태홀딩스 대표이사는 새해를 맞는 각오가 남다르다. 지난 2년간 새롭게 출범한 크라운해태홀딩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부터는 사업부문별로 내실을 다지고 시장 경쟁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표는 미국 프랫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크린부룩대학교 디자인 석사를 마친 뒤 홍익대학교 IDAS대학원에서 디자인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국내 디자인 박사 1호다.

그는 윤영달 크라운해태제과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2007년 크라운제과 이사로 경영에 참여한 이후 2010년 크라운제과 대표이사를 거쳐 2017년에는 크라운해태홀딩스 대표이사에 올랐다. 윤 대표는 2005년 크라운제과가 해태제과를 인수하며 취임해진 재무구조 개선에 힘써왔다. 실제로 2009년 244%에 달했던 부채비율은 그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86%가

지 낮아졌다.

윤 대표는 제과업계 최초로 지주사 전환을 직접 주도하면서 대외적으로 경영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는 디자인 박사 1호답게 디자인 경영으로도 주목 받고 있다. 그는 크라운제과의 주력 제품인 산도, 쿠키다스, 조리퐁, 하임 등에 예술 작품을 활용한 디자인을 적용하는 브랜드 리뉴얼 작업을 진두지휘하기도 했다. 윤 대표는 새해에는 신제품 출시와 예술을 입힌 디자인 적용을 확대해 제과업계에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박미선 기자 only@

##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 금융·IT전문가...2020년 IPO 성공 토대 다진다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는 은행권 CEO 중에서 가장 젊은 1971년 생이다.

그는 카카오 출신으로 카카오뱅크 TFT 부사장을 역임하면서 카뱅 출범에 있어 모든 과정을 챙겼다. 대한화재와 다음, 카카오 등을 거치면서 금융과 IT 분야에서 전문가로 통한다. 나이가 젊고 혁신적이라 평가를 받으면서 자유로운 사내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



윤 대표는 기존에 없던 1기 인터넷은행을 비교적 짧은 기간에 성공 반열에 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7년 7월 출범 이후 올 11월 말까지 729만 명의 고객과 10조 원에 달하는 여·수신을 기록했다. 체크카드 발급 건수는 606만 건에 이른다. 지난해 12월 3일 출시한 모입통장 역시 출시 하루 만에 1만5000개 계좌가 개설됐다.

지난해 3분기 159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지만 2017년 대비 실적은 상당히 개선됐다. 이런 흐름이면 내년부터는 흑자전환도 가능한 상황이다. 장기적으로는 2020년 예정된 기업공개(IPO)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과제도 안고 있다. 지난해 말 윤 대표는 연임을 약속 받으면서 2021년까지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 박진산 기자 jinsan@

## 조병익 흥국생명 대표

### '30년 보험맨' 연임 향한 체질개선 전략·비전은...

흥국생명 조병익 대표는 1985년 보험업계에 발을 들인 이후 30년 이상 생명보험을 다뤘은 전문가다.



조 대표는 지난해 3월 흥국생명 대표로 부임한 후 흥국생명 자본 건전성 강화 등 '체질 개선'을 선언하고 현재 흐름에 맞는 신상품 개발에 주력했다.

그 결과, 취임 직전인 지난해 1분기 지급여력(RBC)비율 148.5%에서 올해 3분기 189.5%로 40%포인트(P) 이상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또 지난해 연말에는 신상품으로 '실적배당형연금전환특약'을 업계 최초로 내놨다.

당시 9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는 성과를 이뤘다. 보험업계는 변액저축보험 중심의 사업 재구성 과 체질 개선이 성공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삼성생명에 입사하며 30년 보험맨으로 살아온 그는 2017년 흥국생명 대표로 취임했다.

그는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최근 장수 CEO가 드물어진 보험업계에서 조 대표가 연임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연초 그가 선보일 올해의 전략과 비전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용욱 기자 dragon@

## 정원재 우리카드 사장

### '30년 영업통' CEO 2년차 '카드의 정석' 이룰까

정원재 우리카드 사장은 1977년 입행해 서천안 지점장과 삼성동 지점장, 충청 영업본부장 등 30년 이상 영업 현장을 누빈 대표적인 사내 '영업통'이다.



임원 승진 이후 마케팅지원단장과 기업고객본부장, 영업지원·인사 총괄 부문을 거치며 마케팅과 전략, 인사(HR)까지 두루 거친 인물이다.

지난해 1월 우리카드 사장에 취임한 그는 올해 CEO 2년차를 맞는다.

지난해 그가 거둔 대표 성과로는 '카드의 정석' 시리즈의 상품 기획을 꼽을 수 있다. 해당 상품은 상품 설계 때부터 정 사장이 강조한 '고객중심' 철학을 담아내는 데 주력했다.

이에 출시 5개월 만에 발급 100만 장, 9개월 만에 200만 장 달성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카드업계에서 상품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 50만 장임을 감안할 때 괄목할 만한 실적이다.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새해엔 카드업계에 호재보다 악재가 많다. 정 대표가 위기에 직면한 카드업계에서 2년 차 징크스를 떨쳐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용욱 기자 dragon@



# “저처럼 임금 폐이는 ‘겜돌이’ 이젠 없어야죠”

## 게임업계 ‘빚투’ 3부작 만든 유튜버 김성희 씨

### 총 조회수 65만, 댓글 4000여건에 체불 경험담 줄줄이 “눈물 흘리며 잡던 사장이 날 ‘손절’...손배청구 협박까지”

“게임판에서 제일 흔한 사기가 뭐니까? 임금체불이예요! 줄 돈 안 주는 ○○○! 속여서 이득 보는 ○○○!”

전직 게임개발자가 우리 게임업계의 ‘빚투’ 문제를 신랄하게 지적했다. 게임방송인 김성희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성희의 G식백과’를 통해 만연한 게임업계의 임금체불을 폭로해 세간의 화제가 됐다. 그가 최근 방영한 ‘게임업계 빚투’ 3부작의 누적 조회 수는 65만 건. 하지만 조회 수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영상에 달린 4000여 개의 댓글에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게임업계의 임금체불 경험담이 절절하게 이어진 것.

지난해 12월 26일 그를 만나 게임업계의 임금체불 상황을 물었다. 김성희 씨 역시 개발자 시절 한 명의 피해자였다.

“제가 인사 5년 차 팀장이었던 시절, 회사가 많이 어려워지면서 저도 사표를 썼죠. 그랬더니 사장님이 ‘성희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 나가면 우리 게임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야’ 하면서 제 앞에 무

릎을 꿇고 우시더라고요.”

사장의 진심한 모습에 그는 남았다. 이후 경영은 정상화됐지만, 회사는 그를 ‘손절’했다.

“사장님이요? 연락 두절은 아주 기본이고요. 어렵사리 연락이 닿았더니 무릎 꿇고 우시던 그분이 ‘당신은 누구세요?’ 하는 식이었어요. 그 뒤엔 ‘게임을 못 만들어서 손해를 봤으니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라는 협박부터 시작해서...”

자신처럼 당하는 후배 ‘겜돌이’가 한 명이라도 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개발 현장에서 물러난 게임방송인 김성희는 그런 마음으로 ‘게임업계 빚투’ 3부작을 준비했다.

“영상 댓글에 임금체불 경험담이 수없이 달렸어요. 댓글 중에 ‘나도 게임업계 종사자인데 이거랑 똑같다!’라는 유형이 있고요. 또 ‘나는 게임업계 종사자는 아니데, 이거랑 똑같다!’라는 유형도 있더라고요.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임금체납 업체를 피하는 정석이 있냐는



유튜브를 통해 게임업계에 만연한 임금체불의 현황을 폭로한 게임방송인 김성희 씨는 “임금체불을 피하는 정석은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후배가 한 명이라도 줄었으면 하는 마음에 ‘빚투 3부작’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그런 정석이 있을 리 없죠. ‘사실 저희가 많이 어려워서, 임금 30%는 못 받는다고 각오하셔야 할 텐데 괜찮으세요?’라고 말하는 사장님 없지 않습니까? 진짜 제대로 된 약덕기업 감별법은, 사실 업계 선배들에게 귀동냥하

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체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그 회사에 가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저는 제 월급을 떼먹었던 그 회사에 절대 입사하지 않을 거예요.”

김정용 기자 cogito@

## 메르켈 獨 총리, 신년사에서 “국제사회에 더 많은 책임” 트럼프 ‘美 제일주의’ 비판



양겔라 메르켈(사진) 독일 총리가 신년사에서 국제적 책임과 연대를 강조하면서도 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제일주의에 맞불을 놓았다.

지난해 12월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새해엔 독일이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책임을 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오랜 확신이 압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일어서서 과거보다 더 많이 신념을 위해 논쟁하고 싸워야 한다”며 “독일은 더 많은 책임을 짊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독일은 지난해 미국에 대한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와 상대적으로 낮은 국방비 지출, 러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등으로 트럼프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배준호 기자 baehj94@

## 홍재은 NH농협생명 대표 취임 “경영체질 혁신에 모든 역량 집중”

홍재은(사진) NH농협생명 신입 대표가 지난달 31일 취임식을 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홍 대표는 이날 취임사에서 “농협생명이 1등 보험사로 거듭나도록 경영체질 혁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올해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우리 앞에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수입보험료 감소, 새 회계제도 도입 등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단계별로 전사적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이후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대표는 1986년에 농협중앙회에 입사해 기업고객부 단장, 농협은행 PE 단장, 자금부장, 농협금융지주 사업전략부 문장을 역임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 새해 첫 입국자는 유커...대한항공, 왕복항공권 등 선물

대한항공은 기해년 새해 첫 손님을 환영하는 행사를 1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서 진행했다.

대한항공의 올해 첫 입국 손님은 중국 베이징발 인천행 KE854편에 탑승한 중국인 위페이(여·43·사진 오른쪽 네 번째) 씨다. 그는 이날 새벽 1시께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대한항공은 위페이 씨에게 대한항공 중국 노선 프레스티지 클래스 왕복항공권 2개와 인천 그랜드하얏트 호텔 숙박권, 인화국제 의료센터 VIP 건강검진권, 인천공항공사



기념패 등 선물과 꽃다발을 증정했다. 위페이 씨는 “신정 연휴를 맞아 관광과 쇼핑을 하며 한국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며 “여행 시작부터 좋은 일이 생겨 이번 한국 방문이 매우 즐거울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 배우 이영애, ‘폐원 위기’ 여성 전문 제일병원 인수 참여

자신도 쌍둥이 출산...후원 기부도

배우 이영애(사진)가 55년 만에 폐원 위기에 처한 여성전문병원 제일병원 인수 컨소시엄에 참여한다.

이영애 측 관계자는 1일 “제일병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통해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이영애 씨 등 몇몇이 병원을 인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애 씨는 이 병원에서 쌍둥이를 출산한 뒤 1억5000만 원을 기부해 다문화가정 산모 등을 후원하며 애정을 보여왔던 것으

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병원의 사정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도를 방법을 찾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1963년 국내 최초로 여성전문병원으로 개원한 제일병원은 현재 외래진료를 전면 중단하고 응급실만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경영 상태가 악화해 있다. 지난해 12월 초 모 의료법인과 병원 매각을 놓고 인수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됐다.

유정선 기자 dwt84@

##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소통총괄비서관 박진호

◆고용노동부 <실장급 고위공무원 승진> △고용정책실장 나영돈

◆국민연금공단 <개방형 직위 인사> △정보화본부장 김대순 <본부 실장 및 지역본부장 전보> △기획조정실장 류승락 △총무지원실장 김창균 △시설관리센터장 김경태 △가입지원실장 정갑수 △노후준비지원실장 이재수 △장애인지원실장 형용욱 △감사실장 이준영 △미래혁신기획단장 이승훈 △서울북부지역본부장 우재광 △경인지역본부장 안성근 △광주지역본부장 장준영 △부산지역본부장 송호동

◆산업은행 <부행장 선임> △중소중견금융부문장 오진교 △혁신성장금융부문장 장병돈 △리스크관리부문장 양기호 △심사평가부문장 배영은 △기업금융부문장 최태현 <부행장 전보> △자본시장부문장 임영호

◆신한은행 <임원 신규 선임> △부행장보(준법감사인) 이순우

◆현대해상 <부장 승진> △홍보부장 김동욱 △시스템지원부장 이주원 △현대해상보험유한공사총경리 김태훈 △재물특종업무부장 이재용 △글로벌보험부장 홍승민 △공기업보험부장 김중성 △법인영업1부장 백부흥 △법인영업3부장 김운래 △영등포사업부장 이용진 △강릉사업부장 송일언 △안양사업부장 김병훈 △부천사업부장 김택규 △전주사업부장 김준희 △전북사업부장 조 용 △동울산사업부장 이재영 △전략채널지원부장 강상우 △인터넷사업부장 백경훈 △장기손사기획부장 성기동 △강남대인보상부장 김남호 △울산대인보상부장 김병용 △전주대인보상부장 홍상호 △개인용자부

장 손성철 <부장 전보> △CS지원부장 이민우 △기획실장 유원식 △디지털전략추진부장 정규완 △기업보험2부장 김재홍 △마케팅기획부장 김중석 △마케팅지원부장 권혁준 △강남AM사업부장 김재용 △중부AM사업부장 김중만 △부산AM사업부장 이승민 △중부사업부장 윤영수 △일산사업부장 최근협 △구리사업부장 이해근 △강남본부지원부장 김호섭 △강서사업부장 전현 △수원사업부장 김부중 △중부본부지원부장 신재용 △서산사업부장 송기원 △호남본부지원부장 박희찬 △광주사업부장 박종문 △목포사업부장 최호석 △울산사업부장 최상천 △진주사업부장 구성모 △대구경북본부지원부장 오원열 △대구사업부장 한교일 △대구사업부장 조석현 △방카영업1부장 김민식 △수도권장기손사부장 김진형 △강서대인보상부장 박연승 △수원대인보상부장 이용택 △인천대인보상부장 임진주 △강원대인보상부장 이인형 △부산대인보상부장 이병훈 △충청대인보상부장 윤기훈 △투자심사부장 엄희석 △투자금융부장 이재경

◆중앙생명 <팀장 승진> △계리팀장 서민호 <파트장 승진> △마케팅파트장 홍제민 △IR파트장 김정겸

◆중앙일보 · 중앙일보 △대표이사 박창희 △순회특과원 남윤호 <국장대우 승격> △고용노동전문기자 겸 고용노동팀장 김기찬 △도쿄총국장 겸 일본지사장 서승욱 <이상 보임> △편집제작부 국장대우 고대훈 △ 이정민 △편집제작부 부국장대우 김동호 △ 김수정 △ 박정호 △ 이상열 △편집제작부 부장대우 안정원 △ 이후남 △ 정재홍 △ 조문규 △편집제작부 부장대우 강정현 △ 고관 △ 박상주 △ 윤철영 △ 임미진 △ 전수진 △ 조현숙 △선임디자이너 정근영 △영입관리부문 수석부장 구명서 △ 최순중 △영

입관리부문 부장 고일권 △ 김성원 △ 김승기 △ 김유민 △ 신상목 △ 이경문 △ 이상훈 △ 이주한 △ 최명기 △ 한용수 △영입관리부문 차장 김도영 △ 김세진 △ 김영상 △ 류승현 △ 박민형 △ 양승균 △ 이무룡 △ 이지혜 △ 조범식 △ 조은순 △중앙일보플러스 JMAP 부문 차장대우 구석찬 <이상 승진> · 중앙홀딩스 △수석부장 권순국 △ 김은중 △부장 김진규 △차장 정원철 △ 정석 · JTBC △제작2국 1CP 이동희 △ 2CP 윤현준 △ 3CP 오윤환 △ 제작3국 1CP 성지경 <부장 승격> △ 2CP 김형중 <부장 승격> △ 3CP 김수아 <부장 승격> △ 제작담당 부국장 이승녕 <부장대우 승격> △뉴스스튜디오팀장 김기중 △뉴스스튜디오2팀장 김은비 △담당 부국장 강병철 △미디어솔루션팀장 박상도 △지적재산권팀장 김중우 <이상 보임> △부국장 조승욱 △ 함영훈 △부장 박우람 △부장대우 김준술 △ 전용우 △차장 김재훈 △ 김희정 △ 안중현 △ 양지영 △ 주현태 △ 한상욱 △ 황남희 △차장대우 강인식 △ 권근영 △ 이정엽 △ 이태경 △ 정강현 △ 허진 <이상 승진> · 메가박스 △상품기획팀장 장광훈 △사이트개발팀장 이대환 △사업개발팀장 전상훈 △브랜드관리팀장 김창진 △공간디자인팀장 이기선 △기획제작팀장 이민우 △미래팀장 안형노 △(이하 승진) 부장 장재형 △차장 공창주 △ 김은중 △ 김효열 △ 박인철 △ 박화중 △ 심민섭 △ 염현선 △ 이채만 △ 이형우 · 휘닉스중앙 △총무팀장 권정필 <보임>

◆서울신문 <승진(이사대우)> △심의실 심의실장 박건승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황성기 △대기자 김준미 <승진(국장급)>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임창용 △경영기획실 실장 이상훈

## 부음

▲홍선기씨 별세, 홍현구·현철(삼성전자 서남아총괄 부사장)·현 씨 부친상, 윤경옥·박혜선·유인순 씨 시부상 = 1일, 서울 삼성의료원, 발인 3일 오전, 02-3410-3151

▲이형기 씨 별세, 이동주(건설근로자 공제회 상임감사) 씨 부친상 = 31일, 고대구로병원 장례식장 202호, 발인 3일 오전, 010-6252-9811

▲권유선 씨 별세, 안길섭(경향신문 독자서비스국 대치 지국장) 씨 장인상 = 31일, 강동성심병원, 발인 2일 오전 8시, 02-470-1692

▲이필규 씨 별세, 전주식(세계일보 사회2부 부국장) 씨 장모상 = 31일, 대구전문장례식장, 발인 2일 오전 10시, 053-961-4444

▲김영애(모니카) 씨 별세, 김한상(명지대 철학과 교수)·문정(재미간호) 씨 모친상, 조원우(미국 VOA 방송 PD) 씨 장모상, 김현아(피아니스트) 씨 시모상 = 31일, 서울압구정동성당 지하 1층 장례식장, 발인 3일 오전 7시, 010-8782-0838

▲김해수 씨 별세, 김병인(한국경제신문 영상정보부장) 씨 부친상 = 31일, 수원시 성빈센트 장례식장 3호실, 발인 3일 오전 8시 30분, 031-249-7444



우태희의 통상 브리핑



연세대 특임교수  
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G2 통상현안 관리와 보호무역주의 대응,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위한 합의, 우리 기업의 대규모 해외사업 수주. 3가지 과제 모두 만만치 않다.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대외 리스크를 잘 관리하여 중장기 사업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작년에 우리나라는 2년 연속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달성했고, 세계 7번째로 '수출 6000억 달러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이러한 수출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는 선진국 금리 인상, 브렉시트,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대외여건이 녹록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 등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과 세계 무역증가율을 작년보다 낮게 전망하고 있다. 우리 수출은 반도체, 석유화학 등 일부 품목에 의존하고 있어 대외 여건에 따라 흔들리기 쉽다. 더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바람 잘 날이 없었던 지난 2년을 되새겨 볼 때 올해 몇 가지 통상정책들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G2 통상현안 관리와 보호무역주의 대응이 시급하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자동차 분야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 조사이다. 작년 철강에서처럼 트럼프는 자동차에도 쿼터 규제 신설을 강행할 텐데, 일단 조사대상에서 제외토록

노력하고, 선정되더라도 동맹국 예외 적용을 받도록 미측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의 수입제한 조치가 세탁기, 태양광, 철강 이외 다른 품목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발효 5년차를 맞는 한·중 FTA의 경제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잘 마무리해 사드 보복과 같은 비정상적 조치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규범과 조항을 강화하기 바란다.

3개월 휴전에 들어간 미·중 무역전쟁은 합의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이 자동차 관세율 인하, 농산물 수입 확대, 지재권 침해 처벌 강화 등 대책을 먼저 쏟아냈지만, 더 양보할지 지켜볼 일이다. 트럼프의 대(對)중국 통상정책은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어 현재의 대처국면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G2가 우리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무역전쟁 장기화에 대비하고 직간접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WTO 다자체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G

2 한쪽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

또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위한 합의가 필요하다. CPTPP는 관심 표명→가입 선언→개별 회원국 협상 등 일정 절차를 거쳐야만 가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말 관심 표명만 했을 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우리보다 FTA 체결국 수에서 뒤져 왔지만, 작년 말 일·EU FTA 타결과 지난해 CPTPP 발효로 단숨에 역전시켜 버렸다. CPTPP 가입으로 우리 농수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해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도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가 12번째 회원국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명확한 의사를 전달해 한 다리를 걸쳐 놓는 것이 메가 FTA 전략 차원에서도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의 대규모 해외사업 수주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는 원전 수주 제로, 미국 고등훈련기 교체사업

탈락, 수리온 수출 불발 등 해외 수주 기쁨에 시달리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을 3만 달러에서 4만~5만 달러로 끌어올리려면 해외사업을 많이 따올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그동안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등 주변국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사업들을 많이 추진해 왔는데 올해 그 결실이 맺어지기를 희망해 본다. 해외사업 수주가 늘고 국익이 창출되면 이를 통해 동반성장도 상생을 추구하는 포용적 통상정책도 가능해질 것이다.

아무튼 3가지 과제 모두 만만치 않다.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대외 리스크를 잘 관리하여 중장기 사업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보호무역주의 파고가 높아질수록 기업과 정부가 함께 협력해 나아가야 할 좌표를 정확히 정하고 힘을 모아야 할 바이다. 2019 기해(己亥)년에는 남북대화, 북미대화가 잘 진전되어 한반도에 평화의 정착되고, 우리나라가 진정한 통상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국민 모두와 함께 염원해 본다.

정책발언대



박 천 규  
환경부 차관

프랑스 해군의 자라이던 항공모함 클레망소(Georges Clemenceau)함이 2006년 5월,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선박 해체를 위해 인도로 이동하던 중 프랑스로 뱃머리를 돌려야만 했다. 클레망소함에 무려 700톤에 이르는 석면이 실려 있어 인도 대법원이 자국 해역 진입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과거 '불멸의 섬유', '기적의 물질'이라 칭송받았던 석면은 폐에 악영향을 끼쳐 석면폐, 폐암 등의 중대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석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의 쌀'로 불리며 널리 사용됐다. 고기를 구워 먹기 위한 불판으로, 어린이들의 놀이기구로 폐석면 슬레이트를 사용하는 풍경을 전국에서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석면 사용

이 전면 금지됐으나, 이전에 사용되었던 슬레이트 지붕, 단열재, 절연재 등의 석면 건축자재가 아직도 많은 건축물에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1년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됐다.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선행 조치로 약 8만 동의 건축물을 조사하고 약 4만 동의 석면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자체와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석면관리 종합정보망'(asbestos.me.go.kr)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석면 공사장 주변 주민의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과거 새마을 운동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보급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의 해체를 위해 지난 8년간 약 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바 있으며, 지하철에 사용된 석면을 모두 제거하는 등 석면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석면으로 인한 질환은 통상 10~20년의 잠복기를 지나 발병하기 때문에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민감 계층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활공간인 학교에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학교의 68.2%는 석면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어, 정부는 2027년까지 약 3조 원을 투입해 모든 학교 건물의 석면을 제거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교육부 및 고용부와 협력해 지난 3년간 3094개교의 석면을 완전히 제거했다.

학교 석면공사를 처음 시행했을 당시에는 공사 후에도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는 등 부실 공사가 발생해 등교 거부와 같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여름방학부터는 강화된 석면공사 기준을 적용하고 학부모,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교 석면 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해 공사 과정을 살펴보게 했다. 덕분에 공사 후 잔재물 무검출이라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안도하기에는 이르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약 140만 동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 약 3만 동의 석면 건축물, 그리고 약 1만 개의 석면 학교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희망이란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길이 되는 것이다." 중국 근대문학의 아버지 루쉰(魯迅)의 작품 '고향'의 한 구절이다.

우리는 지난해 여름방학에 정부만의 힘으로 어려웠던 학교 석면 문제를 학부모,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모인 합동 모니터단으로 해결하면서 루쉰의 통찰이 오늘날에도 유효함을 보았다.

개방과 소통을 통해 학교 석면 공사 잔재물 0%라는 작은 길을 닦은 것이다. 정부와 더불어 국민 모두가 함께 손잡고 걸어 나아가 석면으로부터의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한 큰 길이 열리는 미래를 기대해 본다.

석면 안전을 향한 길을 닦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김경천(金擎天) 명언  
"자유를 선언하고 제3년의 막을 열면서 지긋지긋 독립을 이루지 못한 것이 세계에 부끄러운 일이다. 너무도 자칭 영웅이 많다. 이래서야 한반도의 독립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일본군에 맞서 싸운 독립군의 전설, 일본군이 벌벌 떠 백마를 탄 김 장군, '조선의 나폴레옹'인 별칭으로 불리는 독립운동가. 3·1운동 3년 뒤인 1921년 그의 일기 '경천일록(擎天日錄)'에 나온 단상이다. 그는 옛소련 수용소에서 노역 중 오늘 순국했다. 1888~1942.

☆ 고사성어 / 도광양회(韜光養晦)  
"도광"은 빛을 감춘다, "양회"는 덕을 기르고 종적을 감춘다는 뜻. 자신의 재능이나 명성을 드러내지 않고 힘을 기르고 때를 기다린다는 말이다. 1980년대 중국을 개혁개방의 길로 이끈 덩샤오핑이 외교 방향으로 '28자 방침'에 이 말을 제시해 널리 알려졌다.

☆ 시사상식 / 경기후퇴(景氣後退, recession)  
경기순환의 한 국면으로, 경기가 최고 호황기에서 최저 침체기에 이르기까지의 경제활동 수축과정을 말한다. 그 원인이나 경제활동이 어느 정도 수축했을 때냐에 대해서는 설이 많다. 우리나라는 1980년 경기후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있다.

☆ 우리말 유래 / 꼬투리  
어떤 일의 밑거름 삼기 위한 실마리나 까닭을 뜻한다. 꼬투리는 콩, 팥, 완두 등 곡식의 알맹이가 빠진 깍지를 말한다. 깍지만 보고 당연히 알맹이가 있었을 것이라는 데서 생겨난 말이다.

☆ 유머 / 아들의 해법  
적자 가정에 가족회의가 열렸다. 주제는 초과 지출을 줄이는 방법. 의견이 분분했지만, 아들이 내놓은 해법 때문에 지루한 회의가 끝났다.

"아빠 수입이 적어요. 돈을 더 벌어야 해요."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삶연구소장

기자수첩



김 유 진 산업부/eugene@

석유화학 2세대 CEO들의 고민

진수 LG화학 부회장과 허수영 롯데그룹 화학BU장 부회장이 회사를 성장시키는 소임을 다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됐다.

기해년(己亥年) 새해부터 석유화학업계는 차세대 CEO들이 이끄는 됐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선 이들의 역할이 중요

하다. 석유화학업계는 올해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가 감소하는 동시에 북미 천연가스 기반 화학 설비(ECC)가 신·증설되며 공급 증가 요인이 맞물리고 있어 업황 악화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이에 더해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마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 석유화학업계 톱3인 LG화

학,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의 수익성은 전년 대비 1조5000억 원가량 줄어들며 업황 부진을 체감하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 태동기보다 어찌면 지금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전 산업의 패러다임이 재구성되는 상황에서 사업의 현상 유지는 생존을 어렵게 만들고 신사업 역시 성공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1세대 CEO가 일궈낸 석유화학 산업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선 2세대 CEO들의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능성을 열고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 기름 한 방울 없이 최고의 석유화학 회사를 배출해낸 저력이 올해 다시 한번 발휘될지 바란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Table with 4 columns: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논설실장 추창근, 편집국장 김덕현. Includes contact info and address.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99-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 올해는 인기 없는 대통령이 됐으면

황금돼지의 해인 기해년(己亥年)은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다. 새해는 밝았지만 한국 경제에 대한 국민 불안감은 여전히 2018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 성장률은 민생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고, 고용 악화와 사회 갈등은 여전히 지난해 골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새해 벽두부터 마음이 무겁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일 가진 여당 지도부와와 오찬에서 새해에는 “경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 민생·경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만큼 경제가 엄중하다는 것을 문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통령인 저부터 국민 앞에 더욱 다가가서, 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소통 부족에 대한 반성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경제 실패 프레임 때문에 성과가 전달되지 않는다”고 책임을 언론에 돌렸다. 지난해 소득주도성장으로 소비가 상당히 견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문 대통령 발언의 요지다.

그러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각종 경제연구기관이 내수 부진이 한국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전히 문 대통령의 이러한 경제 인식은 국민과 차이가 있어 보인다. 주위 친지들에게 물어 봐도 물가가 올라 어쩔 수 없이 소비가 늘었지만 실제 씹어보는 오히려 줄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식당을 하시는 분이나 기업인들을 만나 봐도 경기침체로 한 해 한 해가 더 어렵다며 지금은 버티는 것이 최선이라고 한탄한다.

올해 문 대통령이 직접 소통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다행이다. 단순히 시

## 데스크칼럼

### 신동민

정치경제부 정치팀장



민들을 만난다고 소통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잠깐 만난 시민이나, 길어야 두 시간도 안 되는 간담회에서 만난 기업인·소상공인들이 대통령께 전달할 수 있는 얘기는 한계가 있다.

소통은 진정한 공감(共感)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로먼 크르즈나릭은 저서 ‘공감하는 능력(Empathy)’에서 ‘공감은 상상력을 발휘해 다른 사람의 처지에 서보고, 다른 사람의 느낌과 시각을 이해하며, 그렇게 이해한 내용을 활용해 당신의 행동 지침으로 삼는 기술’이라고 표현했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소통이 아니다. 문 대통령이 진정한 소통을 원한다면 최악의 인기 없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지금 문 대통령이 처한 상황과 ‘철(鐵)의 여인’으로 불리는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집권 초기 상황이 묘하게 비슷하다. 1979년 집권한 대처 총리도 영국의 고질병을 고치고자 국가 체질을 바꾸는 과정에서 노동계의 반발과 실업 폭등으로 실각 위기까지 갔다가 결국 경제 활력을 되찾아 장기 집권하게 됐다. 특히 대처 총리는 가장 강성이었던 석탄노조와 전면전을 펼쳐 결국 공기업 개혁을 이뤄내면서 ‘철의 여인’으로 불리게 됐다.

문 대통령도 경제 체질을 바꾸려면 노

동 개혁과 과감한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많은 규제 개혁을 이끌어냈지만 핵심적인 규제 개혁은 이익단체와 정치권의 잇속에 가로막혀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존재 가치는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조정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선제적 조치로 규제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다 보면 규제 개혁은 나올 수 없다. 차량공유 경제만 해도 택시업계 반발에 부딪혀 다른 나라보다 몇 년은 뒤쳐져 있다. 의료 개혁도 의사와 약사 눈치 보기에 바빠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강성노조도 여전히 굳건해 기업들의 생산성 저하로 연결되면서 오히려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기업은 여전히 경기 불황을 모르고 굳건하다.

한국의 고질병을 고치기 위한 진정한 소통과 개혁을 원한다면 정치 생명을 걸고 최악의 인기 없는 대통령 행보를 보여야 한다. 후세에 지지율은 최악의 대통령이었지만, 새로운 경제 기반은 2019년부터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왔으면 좋겠다. 올해 중반을 넘기면 총선과 대선 국면으로 전환하게 돼 개혁을 하고 싶어도 할 힘이 없어진다.

올해에 경제 활력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거나 ‘모든 부처의 규제를 없애고 사후 강력한 처벌과 약자 보호에 나서겠다’는 극단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에 버금가는 충격적 조치가 나오길 기대해 본다. 올해 모든 사회 갈등이 분출돼 가장 혼란스러운 한 해였지만 한국의 고질병을 고칠 수 있었던 한 해였다는 얘기를 듣고 싶다. lawsdm@

## 사설

# 사상 최대 수출, 올해는 먹구름만 가득

작년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6000억 달러를 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수출액이 전년보다 5.5% 늘어난 6055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수입은 11.8% 증가한 5350억 달러로 705억 달러 흑자다.

내수 부진과 투자 위축 등 다른 경제 지표들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역시 반도체가 최대 효자였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1267억 달러로 2017년 979억4000만 달러보다 29.4% 늘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단일 품목으로 가장 큰 20.9%에 달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갖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점에서 수출 호조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무엇보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약재들이 중첩된 까닭이다. 주요 시장인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경기의 동반 하강 추세가 뚜렷하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일제히 올해 세계 경제 성장을 전망치를 작년보다 낮췄다. 미중 무역분쟁 재연,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수출 환경이 갈수록 나빠질 공산이 크다.

특히 반도체에 지나치게 편중된 수출구조가 취약점이다. 반도체 경기의 고점(高點)이 지났다는 비판론은 새

롭지 않다. 이미 반도체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글로벌 수요 둔화로 DRAM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시장이 침체하고, 반도체 굴기(崛起)의 대규모 투자와 지원 정책을 업은 중국 기업 공세까지 본격화하고 있다. 작년 11월부터 국내 업체의 반도체 출하량이 줄기 시작했고,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인 D램익스체인지는 올해 DRAM 가격이 25%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초(超)격차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올해 반도체 수출증가율은 한 자릿수에 그칠 전망이다.

반도체를 제외한 선박과 무선통신기기, 가전, 디스플레이, 자동차, 철강 등 주력산업 대부분의 수출은 작년보다 눈에 띄게 감소하는 추세다. 게다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 수입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자동차 수출의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들은 올해 수출증가율을 작년보다 크게 낮아진 3%대로 예상하는데 그것도 낙관하기 어렵다.

먹구름만 가득한 수출 전선이다. 전통 주력산업의 부진을 메워 줄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혁신 전략도 부재 상태다. 반도체마저 꺾이고 수출이 흔들리면 한국 경제는 더 기떨 곳도 없어진다. 기술과 가격·품질 등 수출경쟁력 강화, 통상 마찰 극복, 새로운 시장 확대 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정책 역량을 총동원한 선제적 대응이 다급하다.

## 노동자의 작은 우리말터



편집부 교열팀장

새해 첫날 새 달력을 책상 위에 놓으며 마음이 설렜다. 지난해의 시간을 비우고 새로운 날들을 채우려니 잔잔한 떨림도 느껴졌다. 부디 올해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길.

새해를 맞아 계획들을 세웠을 게다. 집 없는 사람은 내 집 마련을, 청년들은 취업을, 주부들은 가족의 건강을... 소중한 꿈들이 다 이뤄졌으면 좋겠다. 금연, 외국어 공부, 해외여행, 다이어트 등 일상의 크고 작은 결심들도 했을 터. 얼마 지나지 않아 흐지부지된다 해도 실망할 일은 아니다. 마음을 다잡고 다시 도전하면 되니까.

나는 새해가 되면 수첩에 늘 똑같은 결심을 옮겨 적는다. 험담하지 않기, 음식 남기지 않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시간 내기, 검소하게 살기,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기, 기쁘게 살기. ‘어디선가 봤는데’라며 고개를 가웃거리리는 이들이 많으리라. 몇 년 전 화제를 모았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새해 결심’이다. 신앙심은 물론 이웃 사

## 웃음 바이러스

랑, 타인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황의 면모가 고스란히 드러난 ‘침’ 좋은 내용이라 수년째 따라 하고 있다.

물론 평범한 사람으로선 실천하기 어려운 ‘주님을 자주 만나 대화하기’, ‘가난한 이들 찾아가기’,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친구 되기’ 등은 뻘다. 대신 ‘많이 웃기’를 적는다. 소문만복래(笑門萬福來), 웃는 집에는 온갖 복이 다 들어온다고 했다. 웃으면 건강해진다는 말도 이젠 상식이다. 일소일소(一笑一少)라 하지 않는가.

웃음소리는 나라마다 다르다. 중국은 ‘하하(哈哈)’, ‘허허(呵呵)’, 영국은 ‘하하(haha)’, 호호(hawhaw)’ 웃는다. 일본은 높은 소리로 쾌활하게 웃는 모양을 ‘카라카라(からから)’, ‘게라게라(げらげら)’로 표현한다. 태국은 숫자 ‘5555’로 웃음을 나타낸다. 숫자 5를 뜻하는 태국어의 발음이 ‘하(haa)’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얼굴 표정, 소리 등에 따라 웃음을 표현하는 말이 무궁무진하다. 눈웃음, 입웃음, 코웃음, 목웃음, 얼굴웃음, 입술웃음은 기본이다. 시원치 않게 웃는 데설웃음, 키득거리며 웃는 까투리웃음, 마음

에도 없이 겉으로만 웃는 겉웃음, 여러 사람이 함께 웃는 못웃음, 크게 소리를 내어 시원하게 웃는 너털웃음 등은 듣기에도 재미 있어 무릎을 탁 치게 된다.

웃음을 좀 더 상세하게 표현하면 우리 말이 얼마나 발달된 언어이며 값진 문화유산인지 알 수 있다. 상그레·성그레·생그레·싱그레·쌍그레·쌍그레 등은 눈웃음 시늉말이다. 방그레·방사레·방글·방글방글·방실방실·상궁방궁 등은 입웃음을, 해죽·해죽해죽·뽕궁·뽕궁뽕궁 등은 얼굴웃음을 그렸다. 웃음 표현만 꼽아도 족히 100개는 넘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예쁜 웃음은 어린 아이가 탐스럽고 귀엽게 웃는 모양인 양글방글과 양글양글이다. 입을 작게 벌리고 소리 없이 예쁘장하게 가볍게 자주 웃는 모양인 봉싹봉싹도 그 표정이 떠올라 절로 미소 짓게 된다.

누군가 웃음을 “부작용이 전혀 없는 천연의 명약(名藥)”이라고 표현했다. 엔도르핀을 분비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기 때문이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새해 늘 웃으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jsijsh@



## 임중도원(任重道遠) ①

지난해 12월 24일 교수신문은 2018년 을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임중도원’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보다 나은 2019년을 이루기 위해서는 2018년 대한민국의 상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임중도원’이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임중도원(任重道遠: 任:맡을 임, 重:무거운 중, 道:길 도, 遠:멀 원)은 눈여 태백편에 나오는 증자(曾子:공자의 제자)의 말 “任重而道遠(짐은 무겁고 길은 멀다)”을 줄여 사자성어로 표현한 것이다. 증자는 “선비는 마음을 넓게 갖고 또 의지를 굳세게 갖지 않을 수 없으니 집(할 일)은 무겁고 갈 길은 멀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인(仁)을 자신의 일로 삼으니 어찌 짐이 무겁지 않겠으며 죽은 후에나 그만둘 것이니 어찌 갈 길이 멀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인(仁)을 평생의 임무로 삼아 죽을 때까지 실천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넓게(弘:넓을 흥) 갖고 또 의지를 굳세게(毅:굳셀 의) 갖지 않을 수 없음(不可以不弘毅)을

강조한 것이다.

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기급인(以己及人:자기의 상황을 헤아려 남의 입장에 생각함)’이나 ‘추기급인(以己推人:자신을 헤아려 남을 용서함)’을 먼저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신의 마음을 먼저 크고 넓게 가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홍(弘)’의 의미이다. 크고 넓은 마음으로 헤아린 仁은 강한 의지로 실천해야 하니 그것이 바로 ‘의(毅)’의 의미이다. 이러한 까닭에 仁을 평생의 과업으로 삼아 먼 길을 가는 선비는 ‘홍의(弘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任重道遠’이라면 그것을 자각하고 막중한 임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弘毅해야 한다. 주변의 변화와 사태의 추이를 금세 반겼다가 금세 실망한다거나, 내에 대한 이익여부로 사태를 판단하려는 일희일비(一喜一悲)의 태도를 버리고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내다보며 진지한 자세로 弘毅해야 할 때인 것이다.

전북대 중문과 교수

이투데이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 대한제국의 '대한'과 '국민'이 주인이란 뜻을 합쳐 대한민국이라 하시지요

1919년,  
이역만리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은 시작되었습니다

일제의 억압과 감시를 피해  
3만리의 길을 옮겨 다니면서도

조국 독립을 희망하는 마음은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오늘,  
그날의 정신을 이어 받습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이 희망과 함께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 Hope Together.

함께 시작하는 희망의 100년



**100**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신한금융그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해 임시정부 요인들과 애국 열사들을 되새기고, 100년 전 그들의 정신과 함께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1919. 4. 11 - 1945. 8. 15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9년 중국 상하이에서 한국독립운동가들이 수립했던 임시정부. 국내외에서 3·1운동이 전민족운동으로 확산될 때, 독립정신을 집약하여 우리 민족이 주권국민이라는 뜻을 표현하고, 또 독립운동을 능률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조직하였다. 1945년 8·15광복까지 27년 동안 상해를 비롯한 중국 각처 3만리 길을 떠돌며 한국인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투쟁하였다.

(자료제공처: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신한BNP파리바자신운용 신한캐피탈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DS 신한아이타스 신한신용정보 신한대체투자운용 신한리츠운용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금융그룹